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辛 泳 周 教 授 指 導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漢 文 古 典 懸 吐 의 원 리 분 석 과
유 형 분 류

-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를 활용하여 -

2016

誠 信 女 子 大 學 校 大 學 院

漢 文 學 科

李 貞 恩

漢文 古典 懸吐의 원리 분석과
유형 분류

-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를 활용하여 -

辛 泳 周 教授 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 文 學 科

李 貞 恩

認 准 書

李貞恩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6年 5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漢文 原文은 낱개의 漢字들이 아무런 標識 없이 내리 나열된 형태인데, 이를 풀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자들 간의 관계와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가 분절되는 곳을 가려내야 한다. ‘懸吐’는 이렇게 파악된 정보들을 ‘口訣’이라는 부호로써 시각화하는 일로, 原文의 의미를 확정짓고 아울러 이를 읽는 또 다른 독자들의 이해를 돕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現代의 문장부호로써 原文에 標識를 가하는 ‘標點’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같은 漢字文化圈인 동아시아 학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서로 동의하고 있는데, 懸吐는 標點이 가진 기능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標點이 나타내주지 못하는, 구절과 구절 간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나타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標點은 현재 어느 정도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동아시아 漢字文化圈에 널리 통용될 수 있는 반면에, 懸吐는 그 종류와 용법에 있어서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標點에 비하여 작업자마다 다르게 달릴 여지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懸吐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19세기에 저술된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등은 初學者들을 위하여 句讀를 구분하고 懸吐하는 방법을 안내한 자료들로, 懸吐의 방법을 정리하여 규칙을 세우고 유형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본고는 이 세 자료에서 정리한 懸吐의 방법과 규칙, 유형 등을 실제 懸吐 사례를 들어 분석함으로써 懸吐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세 자료의 공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現代에 적합한 懸吐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懸吐의 표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序論인 I 장에서는 懸吐의 개념과 유용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懸吐에 관

한 연구 현황과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에 관한 연구 현황, 그리고 본고의 연구 방법을 논하였다.

本論인 II장에서는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에서 말한 懸吐의 방법과 규칙, 유형 등을 『論語諺解』, 『孟子諺解』 등의 실제 懸吐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句讀解法」을 중심으로 하여 懸吐의 기본원칙, 구절의 전후 관계와 특징에 따른 유형 분류, 核心漢字의 개별 특성에 따른 懸吐 원칙을 논하였다.

III장에서는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現代 국어문법을 활용하여 現代에 적합한 懸吐 유형 분류 기준을 세운 뒤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懸吐를 추출하여, 이를 다시 세운 유형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結論인 IV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懸吐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 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 現況 및 研究 方法	4
II. 「句讀解法」·「句讀指南」·「俚讀解」의 懸吐 원칙과 懸吐 유형	7
1. 「句讀解法」의 懸吐 기본원칙	8
2. 「句讀解法」의 懸吐 유형 분류	19
(1)懸吐 앞뒤 구절의 의미관계에 따른 유형	21
(2)懸吐 앞 구절의 특징에 따른 유형	38
(3)인용과 관련된 유형	48
3. 核心 漢字의 개별 특성에 따른 懸吐 원칙	56
(1)「句讀解法」	56
(2)「句讀指南」	61
(3)「俚讀解」	64
III. 現代 國語 文法을 활용한 懸吐 유형 의 재분류	66
1. 懸吐 유형 재분류 방법 에 관하여	66
2. 懸吐의 기본 유형과 확장 유형의 도출	68
(1)懸吐의 기본 유형	68
(2)懸吐의 확장 유형	77

V. 結論79

參考文獻

ABSTRACT

I. 序 論

1. 研究 目的

날개의 漢字가 결합되어 완성된 漢文 原文을 정확하게 풀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先人들은 가장 먼저 句讀를 구분하였고, 그런 뒤에 전후 관계와 문법 구조를 파악하여 이에 걸맞은 ‘吐’를 붙여 주었다.

‘懸吐’란 漢文을 읽는 독자가 그 原文의 의미 맥락과 문법 구조를 분석한 뒤에 자신이 파악한 견해를 부호로써 시각화하는 일을 이른다. 읽어야 할 대상 텍스트를 형식의 단위나 호흡의 단위로 분절한 뒤에 그 사이사이에 吐를 집어넣어, 올바른 읽기의 방법을 독자가 직관적으로 간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懸吐의 작업이다. 따라서 懸吐 방식에 대한 이해는 한문 학습과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선결해야 마땅할 것이다.

懸吐는 흔히 ‘口訣’이라는 용어와 혼동하여 사용되는데, 구분하여 말하자면 懸吐는 ‘吐를 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口訣은 과거에 懸吐할 때에 사용하던 부호로서, 곧 ‘吐’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懸吐라는 용어 자체가 ‘부호’의 개념인 ‘口訣’ 및 ‘吐’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¹⁾

口訣은 일반적으로 點과 線으로 구성하는 ‘點吐’ 방식과 借字 表記로 구성하는 ‘字吐’ 방식으로 나뉜다. 懸吐는 이 가운데 字吐 방식의 口訣을 일컫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다. 點吐 방식은 高麗 이전에 활용되었는데, 角筆을 사용하여 經典을 인쇄한 한지 표면 위에 筆壓을 가해서 누르거나 그었을 때에 남는 눌린 자국을 활용하여 해석 순서나 문법적 구조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1) 본고에서는 ‘懸吐’라는 용어를 문맥에 따라 ‘吐를 다는 행위’의 의미 ‘吐’의 의미로 모두 사용하였다.

다만 이 방식은 긴 漢文 研究史를 돌이켜 볼 때 高麗 이후로는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字吐 방식의 口訣이 창안되어 폭넓게 활용되면서 點吐 口訣이 담당하던 기능적 역할을 대부분 흡수하였기 때문에, 활용할 만한 이유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字吐 방식은 기존 漢字를 구성하고 있던 일부 點과 劃을 과감하게 생략하여 만든 부호를 활용한다. 이 방식은 현재까지 漢文 학습과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대체로 ‘懸吐’라는 말로 대칭하곤 한다.

‘標點’의 경우는 이렇게 파악된 문법 정보들을 口訣 부호가 아닌 現代의 문장부호를 활용하여 原文에 표시하여 原文의 의미를 확정함으로써 이를 읽는 다른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일이다. 이렇게 漢文 原典에 標點을 가하여 정리하는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학계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서로 동의하고 있다. 標點은 中國과 日本을 비롯한 동아시아 漢字文化圈은 물론하고, 漢文 문장과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외부 지역의 연구자들에게도 널리 통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標點과는 달리, 懸吐는 標點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標點이 나타내지 못하는 정보까지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구절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어 문맥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도와준다. 標點은 일괄적으로 반점(,)으로 표시되는 경우라도, 懸吐의 경우는 ‘하야’, ‘이나’, ‘이면’, ‘하고’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절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아울러 漢文 문장의 언어학적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사적 함의까지 동시에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말과 다른 漢文을 일상에서 접할 수밖에 없었던 先人들의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해 나름으로 최적화된 방식이 ‘懸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先人들이 사용하던 懸吐의 방식을 추적하고 이를 現代의 언어 환경에 맞추어 정리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은, 現代의 漢文 학습자와 연

구자들에게 漢文 문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보다 정교한 언어도구를 제공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任圭直(1811~1853)의 「句讀解法」, 李森煥(1729~1813)의 「句讀指南」, 朴文鎬(1846~1918)의 「俚讀解」는 초학자들에게 句讀를 구분하고 懸吐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朝鮮 後期の 자료들로, 懸吐를 정리하여 규칙을 세우고 유형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 세 자료에서 정리한 懸吐의 방법과 규칙, 유형 등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실제 懸吐 사례를 들어 보완하여 懸吐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아울러 이 세 자료의 공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現代에도 활용 가능한 懸吐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研究 現況 및 研究 方法

懸吐에 관한 연구는 가장 먼저 국어학계에서 시작되었는데, 주로 口訣의 정의와 기원, 懸吐의 借字表記 방식과 음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²⁾ 특히 佛書와 관련된 角筆과 釋讀口訣 방법에 대한 연구, 鄉札·吏讀와 관련된 연구 등이 현재까지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韓國古典翻譯院을 중심으로 하여 漢文 번역과 원전 정리에 懸吐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標點과 비교하는 연구³⁾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儒家經典 諺解書의 懸吐에 관한 연구⁴⁾도 종종 진행되었다. 그 밖에 懸吐의 미적 기능에 주목한 연구,⁵⁾ 懸吐를 한문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⁶⁾ 특정 漢字와 호응하는 懸吐에 관한 연구⁷⁾ 등이 있었다.

2) 이와 관련한 주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남풍현,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100, 1988.

심재기, 「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대하여 -生成背景 및 釋讀機能을 중심으로-」, 『한국학보』1, 일지사, 1975.

안병희,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진단학보』41, 1976.

3) 이와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은희, 「한국 고전문헌의 표점방식에 대한 시론 -중국식 표점과 한국식 현토의 차이를 중심으로-」, 『역사와담론』53, 2009.

박은희, 「한문번역의 측면에서 바라본 표점과 현토의 차이 -고리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39, 한국고전번역원, 2012.

박종천, 「標點과 懸吐(口訣)의 비교 분석」, 『民族文化』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이규필, 「한문고전 번역 및 표점에 있어 현토 활용의 문제 -‘한대’와 ‘(이)어늘’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3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이상하, 「한문학습 및 번역에 있어서 현토의 문제」, 『민족문화』29, 한국고전번역원, 2006.

이상하, 「한문의 토와 표점의 상관관계」, 고전번역연구3,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4) 이와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유영옥, 「校正廳本 四書諺解의 經學的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충구, 「經書諺解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전호연, 「五書懸吐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5) 신영주, 「『한문토석』에 나타난 윤근수와 최립의 현토 담론에 관하여」, 『한문학보』20, 우리한문학회, 2009.

6) 이병혁, 「傳統 漢文 教育 -漢文 懸吐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0.

7) 정만호, 「‘以’의 용법과 현토」, 『한문학논집』17, 근역한문학회, 1999.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와 관련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최식의 논문 두 편을 들 수 있는데⁸⁾, 이 논문들은 세 자료의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원문과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윤용선의 논문⁹⁾은 「句讀解法」을 국어 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신영주의 논문¹⁰⁾은 「俚讀解」를 소개하고 이 자료가 저술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이 밖에 약간의 단위 논문에서 「句讀解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기도 하였다.¹¹⁾

본고는 懸吐의 전반적인 분석과 유형 분류를 목적으로 하여, II장에서는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에서 말한 懸吐의 원칙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論語諺解』, 『孟子諺解』 등의 실제 懸吐 사례를 들어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보다 상세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句讀解法」을 바탕으로 ‘懸吐의 기본원칙’과 ‘구절의 의미관계와 특징에 따른 유형 분류’를 논하고, 이어서 세 자료의 공통된 내용인 ‘核心漢字의 개별 특성에 따른 懸吐 원칙’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現代 국어 문법을 활용하여 現代에 적합한 懸吐 유형 분류 기준을 세운 뒤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懸吐를 추출하여, 이를 다시 세운 유형 분류 기준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정만호, 「虛辭와 口訣의 機能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8) 최 식, 「句讀解法 漢文의 句讀와 懸吐 口訣」, 『민족문화』32, 한국고전번역원, 2008.

최 식, 「漢文讀法의 韓國的 特殊性 -句讀, 懸吐, 口訣-」, 『한자한문교육』2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9) 윤용선, 「조선 후기의 구절 사용에 대한 고찰 -『句讀解法』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107, 진단학회, 2009.

10) 신영주, 「이상수 문하의 문장해석론과 우리식 한문 읽기」 『한문교육연구』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11) 박은희, 「한문번역의 측면에서 바라본 표점과 현토의 차이 -고리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39, 한국고전번역원, 2012.

이규필, 「한문고전 번역 및 표점에 있어 현토 활용의 문제 -‘한대’와 ‘(이)어늘’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3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이상하, 「한문의 토와 표점의 상관관계」, 고전번역연구3,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등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빈다한 懸吐의 종류를 다소 간소하게 정리함으로써 懸吐의 표준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II. 「句讀解法」·「句讀指南」·「俚讀解」의 懸吐

원칙과 懸吐 유형

朝鮮 학자들의 懸吐에 관한 견해는 정리된 형식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드물다. 漢文古典에 직접 懸吐를 가한 결과물로 남아있는 것은 적지 않으나, 교정청에서 정리한 諺解와 그 懸吐의 경우처럼 집단의 지성을 발휘하여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국가적 권위를 획득하여 폭넓게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任圭直(1811~1853)의 「句讀解法」, 李森煥(1729~1813)의 「句讀指南」, 朴文鎬(1846~1918)의 「俚讀解」¹²⁾는 懸吐에 관하여 정리한, 보기 드문 자료인데, 懸吐의 규칙을 체계화하려는 목적에서 지어졌다기보다는 초학자들에게 句讀를 구분하고 懸吐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교재의 성격으로 저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 완벽한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學脈을 가진 이들이 저술한 각각의 자료에서 懸吐 방법에 관하여 공통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懸吐의 일정한 규칙성과 표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세 자료의 가치를 인정하여, 懸吐 방법에 관한 각 자료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실제 懸吐 사례를 통해 설명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懸吐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아울러 세 자료에서 언급한 懸吐 가운데 쓰임에 관한 설명이 공통적인 懸吐들을 추출하여 그 유형을 現代 국어의 문법 체계에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재분류

12)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세 자료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는 앞서 序論에서 언급한 최식의 두 편의 논문에서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따로 논하지 않고 세 자료의 내용만 다룬다.

함으로써 懸吐 활용의 간소화 가능성을 보여 주고자 한다.

본장에서는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세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되, 「句讀解法」은 다른 두 자료에 비해 懸吐의 기본 원칙과 유형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句讀解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1. 「句讀解法」의 懸吐 기본원칙

任圭直이 저술한 「句讀解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凡例의 형식으로 懸吐의 기본원칙을 9항목으로 기술한 부분이고, 둘째는 구문의 특징에 따라 懸吐의 유형을 16항목으로 기술한 부분이고, 셋째는 ‘一字二字例’라는 제목으로 個別 漢字별 懸吐 유형을 62항목으로 기술한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세 부분을 각각 1장, 2장, 3장으로 지칭하고 또한 각 장의 항목들을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지칭하도록 하겠다.

「句讀解法」 1장은 총 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句讀解法」 자체에 대한 일러두기 성격의 내용과 함께, 句讀를 구분하고 懸吐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칙들을 말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설명이 명확하고 현재의 懸吐 활용에 있어서도 유효하다고 할 만한 懸吐의 기본 원칙 4항목(1번, 5번, 6번, 7번 항목)을 구체적인 예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번 항목

원문: 一凡句讀以諺俗逐條懸註, 其一字而句讀各異者, 兩見之, 一義而句讀稍別者, 竝錄之. 必當各隨其上下文義以讀之, 務要當其理而得其辭, 不可以私意有所毫髮遷就也.

번역: 무릇 句讀는 諺俗으로 조목마다 註를 달았다.¹³⁾ 한 글자인데 句讀가 각각

다른 경우는 두 가지 다 드러내었고, 한 가지 뜻인데 句讀가 약간 다른 경우는 모두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반드시 각각 위아래의 글뜻에 따라 읽어서 그 이치에 알맞게 말을 풀이하려고 해야 하니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 털끝만큼이라도 건강부회해서는 안 된다.

이 항목은 「句讀解法」에서 句讀를 설명하는 기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句讀를 구분하고 懸吐함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 글자인데 句讀가 각각 다른 경우는 두 가지 다 드러내었다[一字而句讀各異者 兩見之]’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한 ‘句讀’는 ‘句讀를 구분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懸吐하는 방법’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이 말은 ‘글자 하나에 대한 句讀를 구분하는 방법과 懸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일 경우에는 그 방법들을 모두 제시하였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句讀解法」 3장 ‘一字二字例’의 3번 항목에서는 ‘然’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句讀를 구분하는 방법과 懸吐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然’자의 위에 懸吐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로 ‘이나’와 ‘이라’를 제시하고, 두 번째로 ‘이로대’와 ‘호대’를 제시하였다.¹⁴⁾ 그리고 아래에 註를 달아서, ‘이로대’와 ‘호대’는 ‘然’자의 아래에 ‘而’·‘其’·‘猶’·‘若’ 등의 虛字가 오는 경우에 달리는 吐임을 밝혀 주었다.¹⁵⁾ 이어서 ‘然’자와 관련하여 句讀를 구분하는 방법도 언급하고 있는데, 곧 ‘然’자의 위쪽에 ‘若’자가 있으면 ‘然’자 위에서 句讀를 끊지 않고 윗구에 붙여서 읽는다는 내용이다.¹⁶⁾

13) 여기서 말한 ‘諺俗’은 ‘한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句讀解法」에서는 吐를 제시할 때에 한글로 표기를 하고 그 왼쪽에 口訣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吐를 표기하고 있는 한글은 옛 한글의 형태인데, 본고에서는 ‘이’와는 구분되어 사용되는 ‘ㅣ’의 형태를 제외하고 모두 현대 한글 표기법에 맞추어 변환하였다. 예문으로 사용한 諺解書 懸吐의 한글 표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변환하였다. 「句讀指南」과 「俚讀解」는 口訣로 懸吐를 표기하였는데 이것 역시 현대 한글 표기법에 맞추어 한글로 변환하여 기술하였다.

14) 「句讀解法」, “然’字上, ‘이나’·‘이라’. ○ ‘이로대’·‘호대’.”

15) 「句讀解法」, “然’字下又有虛字如‘而’·‘其’·‘猶’·‘若’之類, 則其吐或讀如此, 其下則不復以‘이나’讀之.”

16) 「句讀解法」, “然’字上有‘若’字, 則直屬上句而讀之. ‘使然’同”

‘한 가지 뜻인데 句讀가 약간 다른 경우는 모두 기록하였다[一義而句讀稍別者 竝錄之]’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의 따라고 하더라도 쓰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해당 따들을 모두 제시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예컨대 3장의 1번 항목에서는 ‘若’·‘苟’·‘如’·‘誠’·‘儻’ 등의 글자 아래와 ‘則’·‘必’·‘便’ 등의 글자 위에 달리는 따로서 ‘이면’·‘하면’·‘이러면’·‘인댄’·‘이어든’·‘이런들’·‘이런디’ 등의 다양한 따를 제시하고 있다.¹⁷⁾ 이 따들은 가정하는 상황에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쓰임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므로 모두 기록한 것이다.

‘반드시 각각 위아래의 글뜻에 따라 읽어서 그 이치에 알맞게 말을 풀이하려고 해야 하니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 털끝만큼이라도 건강부회해서는 안 된다[必當各隨其上下文義以讀之 務要當其理而得其辭 不可以私意有所毫髮遷就也]’라는 말은 句讀를 구분하고 懸吐함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중요한 원칙을 밝힌 것이다. 漢文 문장은 개별 글자를 임의대로 조합하여 해석하기가 쉬운데, 이 글에서는 漢文에도 엄연히 문법과 규칙이 있음을 보이고 이를 준수하여 이치에 따라 글을 해석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5번 항목

원문 : 一凡句讀上下若無虛字,-虛字謂‘如’·‘若’·‘苟’·‘雖’·‘縱’·‘是故’·‘但’·‘特’之類- 看¹⁸⁾ 其上下文義當用何字方成其辭. 如當加‘若’·‘苟’等字, 則其下曰‘이면’·‘이어든’, 當加‘雖’·‘縱’等字, 則其下曰‘이나’·‘이라도’, 當加‘是故’字, 則其上曰‘일세’·‘할세’, 當加‘但’·‘特’字, 則其上曰‘이로대’·‘호대’之類.

번역 : 무릇 句讀의 위아래에 虛字-虛字는 ‘如’·‘若’·‘苟’·‘雖’·‘縱’·‘是故’·‘但’·‘特’ 따위를 이른다.-가 없으면 그 위아래의 문맥이 어떤 글자를 사용해야 말이 되는가를 살

17) 「句讀解法」, “若’·‘苟’·‘如’·‘誠’·‘儻’等字下, ‘則’·‘必’·‘便’等字上, ‘이면’·‘하면’·‘이러면’·‘인댄’·‘이어든’·‘이런들’·‘이런디’.”

18) 이 글자는 「句讀解法」 원문을 보면 정확히 어떤 글자인지 불분명한데, 글자의 형태와 문맥을 참고해 보면 ‘看’字가 되어야 할 듯하다.

펴야 한다. 예컨대 ‘若’·‘苟’ 등의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 아래는 ‘이면’·‘이어든’이라고 하고, ‘雖’·‘縱’ 등의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 아래는 ‘이나’·‘이라도’라고 하고, ‘是故’의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 위는 ‘일새’·‘할새’라고 하고, ‘但’·‘特’의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 위는 ‘이로대’·‘호대’라고 하는 것 따위이다.

「句讀解法」에서는 句讀를 구분하고 懸吐함에 있어서 ‘虛字’의 쓰임에 주목하고 있다. 虛字란, 위 항목의 雙行小字의 설명에 따르면 ‘如’·‘若’·‘苟’·‘雖’·‘縱’·‘是故’·‘但’·‘特’ 따위의 글자와 같은 것으로, 접속사, 부사, 종결사 등의 성격을 띠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명사, 형용사, 동사 등에 붙어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밝혀 주는 기능을 하는 글자를 이른다. 「句讀解法」의 3장 ‘一字二字例’에서 든 글자들은 대부분 虛字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虛字는 문맥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 글자마다 어떠한 문형을 이루는가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

하지만 글의 성격에 따라 虛字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5번 항목은 바로 虛字가 있지 않은 경우에 句讀를 구분하고 懸吐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곧 虛字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맥을 살펴 어떠한 虛字가 들어갈 만한지를 따져보아서 그 해당 虛字의 예에 속하는 따를 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를 『論語』 諺解書의 懸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정청의 『論語諺解』와 李珥의 『論語栗谷諺解』는 대표적인 『論語』 諺解書인데, 모두 朱熹의 『論語集註』의 풀이를 근거로 하여 懸吐하고 있다. 『論語』와 같은 經書類의 글은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虛字가 생략된 문장이 많으므로 글뜻이 다양하게 풀이될 여지가 많은데, 『論語集註』에서는 虛字를 다수 사용하여 『論語』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이해 글의 의미를 확정짓고 있다. 다음은 『論語』 諺解書의 懸吐例와 『論語集註』의 해당 풀이이다.

예문1 : 至於犬馬하야도 皆能有養이니 不敬이면 何以別乎 | 리오 『論語諺解』(2爲政7)

예문2 : 至於犬馬하야도 皆能有養이니 不敬이면 何以別乎 | 리오 『論語栗谷諺解』(2爲政7)

예문3 : 言人畜犬馬, 皆能有以養之, 若能養其親而敬不至, 則與養犬馬者何異?

예문1·2는 『論語』 「爲政」의 내용으로, 각각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의 懸吐인데, 두 諺解書가 동일하게 懸吐되어 있다. 예문3은 예문1·2의 『論語』 본문에 대한 『論語集註』의 풀이이다. 예문1·2는 孝가 무엇인지를 묻는 子游의 질문에 대한 孔子의 답변인데, ‘不敬’의 앞뒤로는 문맥을 밝혀줄 만한 虛字가 있지 않다. 하지만 『論語集註』에서는 이 부분을 ‘若能養其親而敬不至, 則……’이라고 풀이하어 ‘若……’, ‘……則’이라는 虛字를 더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句讀解法」의 이 5번 항목에서는 ‘若’·‘苟’ 등의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 아래는 ‘이면’·‘이어든’으로 懸吐한다고 하였는데,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 역시 ‘若’과 ‘則’ 등을 더해 의미를 명확히 한 『論語集註』의 풀이에 근거하여 ‘이면’으로 懸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문4 : 朝聞道 이면 夕死 | 라도 可矣니라 『論語諺解』(4里仁8)

예문5 : 朝聞道 이면 夕死 | 라도 可矣니라 『論語栗谷諺解』(4里仁8)

예문6 : 言人不可以不知道, 苟得聞道, 雖死, 可也.

예문4·5는 『論語』 「里人」에 보이는 孔子의 말로, 각각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의 懸吐인데, 역시 두 諺解書가 동일하게 懸吐되어 있다. 예문6은 예문4·5의 『論語』 본문에 대한 『論語集註』의 풀이이다. 예문4·5를 보면 『論語』 본문에는 ‘朝聞道’와 ‘夕死’의 앞뒤로 문맥을 밝혀줄 虛字가 있지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한 『論語集註』의 풀이에서는 ‘苟得聞道 雖死’라고 하여 ‘苟’와 ‘雖’의 虛字를 더해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두 諺解書에서는 「句讀解法」의 이 5번 항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苟’의 虛字가 들

어가야 할 경우에는 ‘이던’으로, ‘雖’의 虛字가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라도’로 懸吐하였음을 볼 수 있다.

예문7 : 不踐迹이나 亦不入於室이니라 『論語諺解』(11先進19)

예문8 : 不踐迹이나 亦不入於室이니라 『論語栗谷諺解』(11先進19)

예문9 : 善人雖不必踐舊跡而自不爲惡, 然亦不能入聖人之室也.

예문7·8은 『論語』 「先進」의 내용으로, 각각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의 懸吐인데, 역시 두 諺解書가 동일하게 懸吐되어 있다. 예문9는 예문7·8의 『論語』 본문에 대한 『論語集註』의 풀이이다. 예문7·8의 『論語』 본문은 ‘善人之道’를 묻는 子張의 질문에 대하여 孔子가 답한 내용인데, ‘不踐迹’의 앞뒤로 문맥을 명확히 밝혀주는 虛字가 있지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한 『論語集註』의 풀이에서는 ‘雖’와 ‘然’ 등의 虛字를 더해 자세히 풀이하여 문맥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이 경우에도 「句讀解法」의 이 5번 항목의 내용과 같이 ‘이나’로 懸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문 문장에 虛字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문맥을 살펴 어떤 虛字가 들어가야 하는가를 따져보아 그 虛字에 해당하는 吐를 단다. 이 항목은 經書類의 글을 懸吐할 적에 註解書의 풀이에 어떠한 虛字가 쓰였는가를 살펴 그에 해당하는 吐를 다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6번 항목

원문 : 一凡下句承上之類, 如‘亦’·‘且’字上, 則以對偶而讀, ‘하고’·‘이오’之類- ‘但’·‘特’字上, 則以相反而讀之.- ‘이로대’·‘호대’之類- 然是字別起下文, 或總承上文者, 則不拘此例, 當觀其上下文勢而讀之. 餘多放此.

번역 : 무릇 아랫구가 윗구를 잇는 부류로서 ‘亦’·‘且’와 같은 글자의 위는 對偶로 읽고-‘하고’·‘이오’ 따위- ‘但’·‘特’과 같은 글자의 위는 相反으로 읽는다-‘이로대’·‘호대’ 따위-. 그러나 이 글자들이 따로 아래의 문장을 시작하거나 위의 문장을

총괄하여 잇는 경우라면 이 기준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 마땅히 위아래의 文勢를 살펴 읽어야 한다. 나머지도 대체로 이와 같다.

이 항목은 「句讀解法」이 정형화된 懸吐 방법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文勢에 따라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 例로 ‘亦’·‘且’와 ‘但’·‘特’의 글자에 대한 懸吐例를 들어 설명하였다.

‘亦’·‘且’의 글자는 ‘又’·‘復’·‘更’ 등과 함께 「句讀解法」 2장 중 3번 ‘對待駢偶之辭’의 懸吐 유형에 언급되었는데, 이 글자들 위에는 ‘하고’·‘하며’·‘이오’·‘이며’·‘코’ 등의 吐가 달린다고 하였다.¹⁹⁾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예문1 : 可與言而不與之言이면 失人이오 可與言而不與之言이면 失人이니 知者는 不失人하며 亦不失言이니라 『論語諺解』(15위령공7)

예문1은 『論語』 「衛靈公」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의 본문은 ‘失人’과 ‘失言’을 對句의 형태로 대비적으로 설명한 뒤에 ‘知者’는 ‘失人’하지도 않고 또 ‘失言’하지도 않음을 말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는 ‘亦’자가 對偶의 文勢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論語諺解』의 懸吐는 「句讀解法」에서 말한 例대로 ‘亦’ 위에 ‘하며’의 吐가 달려있다. 『論語栗谷諺解』 역시 ‘亦’ 위에 똑같이 ‘하며’로 懸吐하였다.²⁰⁾

예문2 : 千乘之國이 攝乎大國之間하야 加之以師旅 | 오 因之以饑饉이어든 由也 | 爲之면 比及三年하야 可使有勇이오 且知方也케호리이다 『論語諺解』(11先進25)

19) 「句讀解法」, “待對駢偶之辭, ‘하고’·‘하며’·‘이오’·‘이며’·‘코’……○‘亦’·‘且’·‘又’·‘復’·‘更’字上亦同.”

20) 可與言而不與之言이면 失人이오 可與言而不與之言이면 失人이니 知者는 不失人하며 亦不失言이니라 『論語栗谷諺解』(15위령공7)

예문3 : 千乘之國이 攝乎大國之間하야 加之以師旅하며 因之以饑饉이어든 由也 | 爲之면 比及三年하야 可使有勇이며 且知方也케하리이다 『論語栗谷諺解』(11先進25)

예문2·3은 『論語』「先進」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의 懸吐인데, ‘且’ 위에 각각 ‘이오’와 ‘이며’의 吐가 달렸다. 이 예문들 역시 「句讀解法」에서 말한 懸吐例와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예문4 : 子 | 謂韶하사대 盡美矣오 又盡善也 | 라하시고 謂武하사대 盡美矣오 未盡善也 | 라하시다 『論語諺解』(03팔일25)

예문5 : 子 | 謂韶하사대 盡美矣며 又盡善也 | 라하시고 謂武하사대 盡美矣오 未盡善也 | 라하시다 『論語栗谷諺解』(03팔일25)

예문4·5는 『論語』「八佾」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의 懸吐인데, 對偶를 나타내는 또 다른 글자인 ‘又’ 위에 각각 ‘오’와 ‘며’의 吐가 달려있다.²¹⁾ 이 예문들 역시 「句讀解法」에서 말한 懸吐例와 부합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例는 ‘亦’·‘且’ 등의 글자에 대한 기본적인 懸吐例일 뿐이고 실제 쓰임에 있어서는 문맥에 따라 懸吐의 형태가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문6 : 何傷乎 | 리오 亦各言其志也 | 니라 『論語諺解』(11先進25)

예문6은 『論語』「先進」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栗谷諺解』 역시 동일하게 懸吐하고 있다.²²⁾ 예문6의 『論語』 본문은 孔子의 제자들

21) ‘오’와 ‘이오’, ‘며’와 ‘이며’는 바로 앞의 글자의 종성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같은 토이다. 「句讀解法」 1장의 8번 항목에서는 吐가 달리는 글자의 음에 따라 吐 위에 ‘이’를 넣는 경우와 ‘丨’를 넣거나 아예 넣지 않는 경우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는데, 현대 국어의 습관에 서는 이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2) 何傷乎 | 리오 亦各言其志也 | 니라 『論語栗谷諺解』 (11先進25)

이 등용된 이후에 행하고자 하는 각자의 계획을 말하는 자리에서 曾點이 자신의 뜻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뜻 말하지 못하자 孔子가 거리까지 말도록 권유하며 한 말이다. 이 예문에도 ‘亦’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지만, 바로 위의 구절이 ‘乎’라는 의문형 종결사로 끝나며 문장의 단락을 짓고 있고 ‘亦’자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亦’의 위에는 「句讀解法」에서 말한 일반적인 懸吐例와 달리 의문형 종결의 기능을 하는 ‘이리오’라는 吐가 달려있다.

예문7 : 求仁而得仁이어니 又何怨이리오 『論語諺解』(07述而14)

예문7은 『論語』 「述而」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栗谷諺解』 역시 동일하게 懸吐하고 있다.²³⁾ 예문7의 『論語』 본문은 衛나라 군주를 돕는 것에 대한 孔子의 의향을 알기 위하여 子貢이 옛 賢人인 伯夷·叔齊를 들어 이들이 원망하였는가를 질문하였는데, 孔子가 답한 내용이다. 이 예문에도 ‘又’라는 글자가 들어있지만 ‘又’의 앞의 구절과 뒤의 구절은 對偶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句讀解法」의 이 항목에서 말한 ‘위의 문장을 총괄하여 잇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항목에서는 「句讀解法」이 懸吐의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맥에 따라 얼마든지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7번 항목

원문 : 一凡字義有蒙上文而其下句讀相對者, 與上文同. 如‘以’·‘使’字下, 當以‘으로’讀之, 而其下文雖無‘以’·‘使’字, 又必有是字方成其辭, 則亦以‘으로’讀之之類, 是

23) 求仁而得仁이어니 又何怨이리오 『論語栗谷諺解』(07述而14)

也.

번역 : 무릇 글자의 뜻이 윗글과 이어지면서 그 아래의 句讀가 相對되는 경우는 윗글과 똑같이 한다. 예컨대 ‘以’·‘使’의 아래는 ‘으로’로 읽어야 하는데, 그 아랫글에 비록 ‘以’·‘使’의 글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이 글자가 있어야만 말이 된다. 또한 ‘으로’로 읽는 것 따위이다.

이 항목은 ‘以’·‘使’ 등의 虛字가 바로 아래의 구절 뿐 아니라 더 아래에 있는 구절까지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되는 전체 구절에 같은 따를 달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예문1 : 今王이 發政施仁하사 使天下仕者로 皆欲立於王之朝하며 耕者로 皆欲耕於王之野하며 商賈로 皆欲藏於王之市하며 行旅로 皆欲出於王之塗하시면 天下之欲疾其君者 | 皆欲赴愬於王하리니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잇고 『孟子 諺解』(양혜왕상 7)

예문1은 『孟子』 「梁惠王 上」의 내용에 대한 『孟子 諺解』의 懸吐이다. 『孟子』의 본문은 孟子가 齊宣王에게 仁政을 베풀 것을 권유하면서 천하의 仕者·耕者·商賈·行旅로 하여금 모두 왕의 나라에 거주하길 원하게 만들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 문장에서 ‘使’가 갖는 使役의 의미는 바로 아래의 ‘天下仕者皆欲立於王之朝’의 구절뿐만 아니라 더 아래에 있는 ‘行旅皆欲出於王之塗’의 구절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우에 예문1의 懸吐 역시 「句讀解法」의 이 7번 항목에서 말한 대로 ‘使’ 바로 아래의 ‘天下仕者’뿐만 아니라 ‘耕者’·‘商賈’·‘行旅’의 아래에도 ‘로/으로’의 따가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2 : 國君이 進賢호대 如不得已니 將使卑로 踰尊하며 疏로 踰戚이니 可不慎與잇가 『孟子 諺解』(양혜왕하 7)

예문2는 『孟子』 「梁惠王 下」의 내용에 대한 『孟子諺解』의 懸吐이다. 『孟子』의 본문은 孟子가 齊宣王에게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신중히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아뢴 것인데, 바로 지위가 낮은 이로 하여금 높은 이를 넘게 하고 소원한 이로 하여금 친한 이를 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서 ‘使’는 바로 아래의 ‘卑踰尊’뿐만 아니라 ‘疏踰戚’의 구절까지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우에 예문2의 懸吐 역시 이 7번 항목에서 말한 대로 ‘卑’뿐만 아니라 ‘疏’의 아래에도 ‘로/으로’의 吐가 달려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懸吐의 원칙들은 漢文 原文의 의미를 더욱 치밀하고 자세하게 풀이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懸吐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각 글자가 담당하는 의미를 세세하게 분석하도록 돕는 것이다. 任圭直의 「句讀解法」 1장에서 말한 懸吐의 기본원칙은 漢文 原文을 풀이함에 있어 懸吐가 지니는 이러한 장점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2. 「句讀解法」의 懸吐 유형 분류

「句讀解法」의 2장에서는 구문의 성격에 따라 특징지어 질 수 있는 懸吐들을 분류하여 총 16개 항목을 들고 있는데, 懸吐를 유형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항목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句讀解法」의 懸吐 유형 분류>

항목 번호	懸吐 분류 항목	해당 懸吐	관련 글자
1	凡一意相承及一人之事 (하나의 뜻이 이어지는 경우와 한 사람의 일)	하야(하사)	
2	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 (여러 사람의 일과 다른 뜻이 이어지는 경우)	하니(하시니) 한대(하신대) 이어늘(이어시늘)	
3	待對駢偶之辭 (상대되어 짝을 이루는 말)	하고(하시고) 하며(하시며) 이오 이며(이시며) 코	亦·且·又·復·更위
4	斷辭 (종결하는 말)	이라 이니라 하니라 하나니라 하다 이러라(이러시다) 하더라(하더시다) 이로다(이샷다) 하나다 하듯다 이랏다	
5	直下之辭 (곧장 내려오는 말)	이 은 는 을 의 이라 앤 엔 아	
6	承上之辭 (위를 잇는 말)	이니(이시니) 하니(하시니)	
7	泛論之辭 (泛然하게 논하는 말)	하나니(하시나니) 或이나니(이시나니)	夫·凡·蓋·大抵아래
8	自稱之辭 (자신을 일컫는 말)	하노니 이로나 하노라(하노이다) 이로다(이로이다) 호니 호라(호이다) 일가 하노니	請·願·竊·自·愚·欲·敢·恐·乞·望아래
9	相反之辭 (상반되는 말)	이로대(이사대) 호대(하사대) 이어늘(이어시늘) 이어나와 키니와 이언마는(이어신마는) 或하언마는 이리오마는(이시리오마는)	唯·獨·但·只·特·猶·尙·今·却위 豈·何·固아래
10	前日之辭 (과거에 대한 말)	이러니(이러시니) 하더니(하더시니) 이라가 하다가 이러니라(이러시니이	今·後·及·尋·旋·還·乍·

		다) 하더니라(하더시니이다) 이어늘	會 久·方·初·始 아래
11	將然之辭 (미래에 대한 말)	할새(하실새)	將·則·必 아래
12	歷言之辭 (일일이 거론하는 말)	와 과 꽤로다	及·與 위
13	禁止之辭 (금지하는 말)	하라(하소서) 이어다 하라하더라	莫·勿·毋·無 ·請·願·慎· 勉·乞·望·須 아래
14	引古語及他人言之辭 (옛말과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말)	이라하니(이라하시니) 이라하고(이라하시고) 이라하야(이라하사) 이라하야늘(이라하야시늘) 이라하나니(이라하시나니) 이라하야든(이라하야시든) 이라하더라(이라하더이다/이라하더시다) 오하야든 고하야든 이리오하야든	曰·謂·以爲· 稱·聞·以·豈· 何 아래
15	自言之辭 (자신의 말을 나타내는 말)	이라호니 이라하노니 이라호라(이라하이다) 이라하노라(이라하노이다)	以爲·謂 아래
16	言語及行事在下文者上 (언어와 행위가 아래 글에 있는 경우)	호대(하사대) 혼대	

◇尊稱의 吐

「句讀解法」의 2장에서는 구문의 특징을 언급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吐를 나열한 뒤에 다시 나열한 吐들의 尊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1번 ‘凡一意相承及一人之事’ 항목에서는 ‘하야’의 吐를 제시하고 그 아래에 ‘尊稱’으로서 ‘하사’의 吐를 함께 제시하였다. 위의 표에서는 일반 吐 뒤에 괄호를 붙이고 그 안에 의미가 같은 尊稱의 吐를 배치하였다.

尊稱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1번 항목의 雙行小字에서 尊稱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존칭은 君父에게 고하는 것과 君上·父母·聖賢의 일을 이른다.[尊稱謂告君父及君上父母聖賢之事]”라고 하였다. 곧 「句讀解法」에서 제시한 尊稱의 吐는 ‘윗사람에게 고할 때에 사용하는 것’과 ‘행위의 주체가 윗사람일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표의 尊稱의 吐 중에 ‘하소서’·‘이라하더이다/이라하더시다’·‘이라하이다’·‘이라하노이다’는

진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尊稱의 따는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尊稱의 따와 그 기본형의 따는 그 쓰임이 같으므로 본고에서는 기본형의 따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유형 분류 기준

「句讀解法」 2장에서 분류한 16항목의 懸吐 유형들은 그 특징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²⁴⁾

첫 번째는 懸吐의 앞뒤 구절의 의미관계에 따라 분류된 항목들로, 1번 凡一意相承及一人之事, 2번 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 3번 待對駢偶之辭, 4번 斷辭, 5번 直下之辭, 6번 承上之辭, 9번 相反之辭, 12번 歷言之辭가 해당된다.

두 번째는 懸吐 앞 구절의 특징에 따라 분류된 항목들로, 7번 泛論之辭, 8번 自稱之辭, 10번 前日之辭, 11번 將然之辭, 13번 禁止之辭가 해당된다. 이 항목들에 속한 懸吐들은 첫 번째 유형의 항목에도 중복되어 소속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세 번째는 인용과 관련된 懸吐를 분류한 항목들로, 14번 引古語及他人言之辭, 15번 自言之辭, 16번 言語及行事在下文者上이 해당된다.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나눈 懸吐의 유형을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다.

(1) 懸吐 앞뒤 구절의 의미관계에 따른 유형

◆1번 凡一意相承及一人之事(하나의 뜻이 이어지는 경우와 한 사람의 일)

24) 윤용선은 「句讀解法」 2장의 懸吐 유형들을 ‘구절과 구절 사이의 논리적 의미관계에 의해 분류된 유형’, ‘구절 내부의 문법적 의미·구절 내부의 통사구조·문의 텍스트적 성격에 따라 분류된 유형’, ‘말을 풀 때의 순서를 나타내는 유형’의 세 부류로 구분한 바 있다. 「조선 후기의 구절 사용에 대한 고찰 -『句讀解法』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107, 진단학회, 2009, p.181-182.

해당 ㅌ : 하야(하사)

2번 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여러 사람의 일과 다른 뜻이 이어지는 경우)

해당 ㅌ : 하니(하시니) 한대(하신대) 이어늘(이어시늘)

懸ㅌ가 위치하는 곳의 앞뒤 구절의 관계를 따져볼 때, 1번 항목은 하나의 뜻이 이어지거나 한 사람의 일이 계속되는 경우에 사용하는懸ㅌ를 분류한 것이고, 2번 항목은 다른 뜻이 이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일로 전환되는 경우에 사용하는懸ㅌ를 분류한 것인데, 두 개의 항목이 대비된다는 특징이 있다. 1번 항목에는 ‘하야(하사)’ 한 종류의 ㅌ가 속해 있고, 2번 항목에는 ‘하니(하시니)’·‘한대(하신대)’·‘이어늘(이어시늘)’ 세 종류의 ㅌ가 속해 있는데, 예문을 통해 각각의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1 : 顏淵이 死~~키늘~~ 顏路 | 請子之車~~하야~~ 以爲之槨~~한대~~ 子 | 曰 才不才에 亦各言其子也 | 니 鯉也 | 死~~키늘~~ 有棺而無槨호니 吾不徒行~~하야~~ 以爲之槨은 以吾 | 從大夫之後 | 라 不可徒行也 | 니라 『論語諺解』(11선진07)²⁵⁾

예문1은 『論語』 「先進」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懸ㅌ로, 『論語』 본문은 孔子의 愛弟子인 顏淵이 죽은 뒤에 그 부친인 顏路가 孔子에게 수레를 팔아 外棺을 마련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論語』 본문의 앞부분은 ‘顏淵死 顏路請子之車 以爲之槨 子曰’과 같이 句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된 각 구절들의 앞뒤 관계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일로 전환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일이 계속되기도 한다. ‘顏淵死’와 ‘顏路請子之車’의 사이에는 ‘顏淵’의 일에서 ‘顏路’의 일로 행위의 주체가 전환되고 있고, ‘顏路請子之車’와

25) 顏淵이 死~~키늘~~ 顏路 | 請子之車~~하야~~ 以爲之槨~~한대~~ 子曰 才不才에 亦各言其子也 | 니 鯉也 | 死~~키늘~~ 有棺而無槨호니 吾不徒行~~하야~~ 以爲之槨은 以吾從大夫之後 | 라 不可徒行也 | 니새니라 『論語栗谷諺解』(11선진07)

‘以爲之槨’의 사이에는 ‘顔路’ 한 사람의 일이 계속되고 있다. 또 ‘以爲之槨’과 ‘子曰’의 사이에는 행위의 주체가 ‘顔路’에서 ‘孔子’로 전환되고 있다. 이 경우에 예문1을 보면 행위의 주체가 전환되는 ‘顔淵死’와 ‘以爲之槨’의 뒤에는 각각 2번 항목에 속하는 ‘커늘’과 ‘한대’로 懸吐하고, 한 사람의 행위가 계속되는 ‘請子之車’의 뒤에는 1번 항목에 속하는 ‘하야’로 懸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뒷부분에도 ‘커늘’과 ‘하야’의 따가 또 보이는데, ‘커늘’의 앞 구절인 ‘鯉也死’는 행위의 주체가 ‘鯉’이고 뒤 구절인 ‘有棺而無槨’은 행위의 주체가 ‘孔子’인바, 다른 사람의 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야’의 앞 구절인 ‘吾不徒行’과 뒤 구절인 ‘以爲之槨’은 ‘孔子’ 한 사람의 행위가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예문2 : 季康子 | 患盜하야 問於孔子한대 孔子 | 對曰 苟子之不欲이면 雖賞之라도 不竊하리라 『論語諺解』 (12안연18)²⁶⁾

예문2는 『論語』 「顔淵」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魯나라의 대부 季康子が 도둑을 걱정하여 이를 해결할 방안을 孔子에게 묻자 孔子가 답하는 내용이다. 본문 앞부분은 ‘季康子患盜 問於孔子 孔子對曰’로 句讀를 구분할 수 있는데, ‘季康子患盜’와 ‘問於孔子’의 구절은 행위의 주체가 ‘季康子’로 동일하다. 이 경우에 1번 항목에 속하는 ‘하야’의 따가 달렸다. 그리고 ‘問於孔子’와 ‘孔子對曰’은 행위의 주체가 ‘季康子’에서 ‘孔子’로 전환되었는데, 이 경우에 2번 항목에 속하는 ‘한대’의 따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예문3 : 公山弗擾 | 以費畔하야 召이늘 子 | 欲往이러시니 子路 | 不說曰 末之也已니 何必公山氏之之也 | 시리잇고 子 | 曰 夫召我者는 而豈徒哉리오

26) 季康子 | 患盜하야 問於孔子한대 孔子 | 對曰 苟子之不欲이면 雖賞之不竊이리라 『論語栗谷諺解』 (12안연18)

如有用我者 ㄱ댄 吾其爲東周乎 ㄱ저 『論語諺解』 (17양화05)²⁷⁾

예문3은 『論語』 「陽貨」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公山弗擾라는 자가 費邑을 점거하여 반란하고서 孔子를 초치하였는데 孔子가 이에 응하려고 하자 子路가 의문을 갖는 내용이다. 본문의 앞부분은 ‘公山弗擾以費畔 召 子欲往’으로 구두를 구분할 수 있는데, ‘公山弗擾以費畔’와 ‘召’의 구절은 행위의 주체가 ‘公山弗擾’로 동일하고 ‘召’와 ‘子欲往’의 구절은 행위의 주체가 ‘公山弗擾’에서 ‘孔子’로 전환되었다. 이 경우에 역시 전자에는 1번 항목의 ‘하야’의 吐가, 후자에는 2번 항목의 ‘어늘’의 吐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예문4 : 孺悲 | 欲見孔子 | 어늘 孔子 | 辭以疾하고 將命者 | 出戶 | 어늘 取瑟而歌 하사 使之聞之하시다 『論語諺解』 (17양화20)²⁸⁾

예문4는 『論語』 「陽貨」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孔子가 孺悲라는 자가 뵙기를 청하는 것에 대하여 병을 핑계로 거절한 뒤에 비파를 연주함으로써 거절한 이유가 병 때문이 아님을 알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예문에는 2번 항목에 속한 ‘어늘’이 두 차례 보이고, 1번 항목에 속한, ‘하야’의 尊稱인 ‘하사’가 한 차례 보인다. 첫 번째 ‘어늘’ 吐의 앞 구절인 ‘孺悲欲見孔子’와 뒤 구절인 ‘孔子辭以疾’은 행위의 주체가 ‘孺悲’에서 ‘孔子’로 전환되고, 두 번째 ‘어늘’ 吐의 앞 구절인 ‘將命者出戶’와 뒤 구절인 ‘取瑟而歌’는 행위의 주체가 ‘將命者’에서 ‘孔子’로 전환되고 있다. 또 ‘하사’ 吐의 앞 구절인 ‘取瑟而歌’와 뒤 구절인 ‘使之聞之’는 행위의 주체가 ‘孔子’로

27) 公山弗擾 | 以費畔하야 召 | 어늘 子 | 欲往이러시니 子路 | 不說曰 末之也已니 何必公山氏之之也 | 잇고 子曰 夫召我者 | 而豈徒哉리오 如有用我者 ㄱ댄 吾其爲東周乎 ㄱ저 『論語栗谷諺解』 (17양화05)

28) 孺悲 | 欲見孔子 | 어늘 孔子 | 辭以疾하고 將命者 | 出戶 | 어늘 取瑟而歌하야 使之聞之하시다 『論語栗谷諺解』 (17양화20)

동일하다.

◆3번 待對駢偶之辭(상대되어 짝을 이루는 말)

해당 ㅌ : 하고(하시고) 하며(하시며) 이오 이며(이시며) 코

이 항목의 懸吐들은 懸吐가 위치하는 곳의 앞뒤 구절이 對偶 혹은 並列의 관계를 가질 때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곧 두 가지 이상의 사물 혹은 사실이 대등하게 나열될 때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문1 : 子 | 曰 視其所以하며 觀其所由하며 察其所安이면 人焉廋哉리오 人焉廋哉리오 『論語諺解』(02위정10)²⁹⁾

예문1은 『論語』 「爲政」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을 차례로 설명한 孔子의 말인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이 바로 그 방법으로서 나열되어 있다. 이 세 구절은 의미뿐만 아니라 글자의 구조 또한 ‘관찰을 의미하는 글자 + 其 + 所 + 관찰대상의 행위’의 형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3번 항목에 속하는 ‘하며’의 ㅌ가 달려있음을 볼 수 있다.

예문2 : 子 | 曰 道之以政하고 齊之以刑이면 民免而無恥니라 道之以德하고 齊之以禮면 有恥且格이니라 『論語諺解』(02위정03)

예문3 : 子曰 道之以政이오 齊之以刑이면 民免而無恥니라 道之以德이오 齊之以禮면 有恥且格이니라 『論語栗谷諺解』(02위정03)

예문2·3은 『論語』 「爲政」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백성을 政·刑과 德·禮로 다스릴 때의 차이를 설명

29) 子曰 視其所以하며 觀其所由하며 察其所安이면 人焉廋哉리오 人焉廋哉리오 『論語栗谷諺解』(02위정10)

한 孔子의 말인데, ‘道之以政’과 ‘齊之以刑’이 對偶로서 짝을 이루고 ‘道之以德’과 ‘齊之以禮’가 역시 對偶로서 짝을 이룬다. 이러한 경우에 『論語諺解』에서는 ‘하교’의 吐를 달았고, 『論語栗谷諺解』에서는 ‘이오’의 吐를 달았는데, 이 둘의 諺解文을 살펴보면 내용상 큰 차이가 있지 않다.³⁰⁾ 곧 ‘하교’와 ‘이오’ 등의 吐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항목의 雙行小字에서는 특별히 ‘하며’와 ‘하교’의 吐를 구분하여, ‘하며’는 ‘하교’의 相間待對處에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³¹⁾ 이 말은 곧 ‘하교’의 吐가 달린 待對의 구절이 다른 층위에서 다시 待對가 될 경우에 그 사이를 ‘하며’의 吐로 구분한다는 의미이다. 예문을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문4 : 子 | 曰 君子는 懷德하교 小人은 懷土하며 君子는 懷刑하교 小人은 懷惠니라 『論語諺解』 (04이인11)³²⁾

예문5 : 子 | 曰 知者는 樂水하교 仁者는 樂山이니 知者는 動하교 仁者는 靜하며 知者는 樂하교 仁者는 壽 | 니라 『論語諺解』 (06옹야21)³³⁾

예문6 : 子 | 曰 出則事公卿하교 入則事父兄하며 喪事를 不敢不勉하며 不爲酒困이 何有於我哉오 『論語諺解』 (09자한15)³⁴⁾

예문4는 『論語』 「里仁」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

30) 『論語諺解』에서는 “子 | 曰〇사디 道호디 政으로써 호교 齊호디 刑으로써 호면 民이 免홀만 호교 恥홀은 업느니라 道호디 德으로써 호교 齊호디 禮로써 호면 恥홀이 잇고 또 格호느니라”라고 풀이하였고 『論語栗谷諺解』에서는 “子 | 曰〇사디 政으로써 道호교 刑으로써 齊호면 民이 免호디 恥업스니라 德으로써 道호교 禮로써 齊호면 恥잇고 또호 格호느니라”라고 풀이하였다.

31) 「句讀解法」, “‘하며’者, ‘하교’之相間待對處多用之, 亦變通之例也.”

32) 子曰 君子는 懷德하교 小人은 懷土하며 君子는 懷刑하교 小人은 懷惠니라 『論語栗谷諺解』 (4이인11)

33) 子曰 知者는 樂水하교 仁者는 樂山하나니 知者는 動하교 仁者는 靜하며 知者는 樂하교 仁者는 壽 | 니라 『論語栗谷諺解』 (6옹야21)

34) 子曰 出則事公卿하교 入則事父兄하며 喪事不敢不勉하며 不爲酒困이 何有於我哉오 『論語栗谷諺解』 (9자한15)

은 君子와 小人을 비교하여 한 말인데, 이 예문에는 두 층위의 待對가 존재한다. ‘君子懷德’과 ‘小人懷土’, ‘君子懷刑’과 ‘小人懷惠’가 각각 하위의 待對가 되고 다시 ‘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가 상위의 待對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하위의 待對에는 ‘하고’, 상위의 待對에는 ‘하며’의 토가 달렸다.

예문5는 『論語』 「雍也」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知者和 仁者를 비교하여 한 말이다. 이 문장에서는 ‘知者動’과 ‘仁者靜’, ‘知者樂’과 ‘仁者壽’가 하위의 待對를 이루고 다시 ‘知者動 仁者靜’과 ‘知者樂 仁者壽’가 상위의 待對를 이루는데, 역시 하위에는 ‘하고’, 상위에는 ‘하며’의 토가 달렸다.

예문6은 『論語』 「子罕」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孔子가 네 가지의 일을 들면서 이에 대해 자처하지 않음으로써 겸손함을 보이는 내용이다. 이 문장에서는 ‘出則事公卿’과 ‘入則事父兄’이 하위의 待對를 이루고, 이 두 구절이 합쳐져서 다시 ‘喪事不敢不勉’, ‘不爲酒困’과 함께 상위의 待對를 이루는데, 전자에는 ‘하고’, 후자에는 ‘하며’의 토가 달렸다.

참고로 『論語諺解』의 懸吐는 층위가 없는 待對일 경우에 ‘하고’보다는 ‘하며’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하고’가 사용된 경우에는 둘 이상의 待對가 긴밀하게 대조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 예문은 『論語諺解』의 懸吐 중에 ‘하고’가 待對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들이다.

예문7 : 子 | 曰 君子는 周而不比하고 小人은 比而不周 | 니라 『論語諺解』 (02위정14)³⁵⁾

예문8 : 子 | 曰 君子는 喻於義하고 小人은 喻於利니라 『論語諺解』 (04이인16)³⁶⁾

예문9 : 子 | 曰 君子는 和而不同하고 小人은 同而不和 | 니라 『論語諺解』 (13자로23)³⁷⁾

35) 子曰 君子는 周而不比하고 小人은 比而不周 | 니라 『論語栗谷諺解』 (2위정14)

36) 子曰 君子는 喻於義하고 小人은 喻於利니라 『論語栗谷諺解』 (4이인16)

- 예문10 : 子 | 曰 君子는 泰而不驕하고 小人은 驕而不泰니라 『論語諺解』 (13자로26)³⁸⁾
- 예문11 : 子 | 曰 君子는 上達하고 小人은 下達이니라 『論語諺解』 (14헌문24)³⁹⁾
- 예문12 : 子 | 曰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 『論語諺解』 (02위정15)⁴⁰⁾
- 예문13 : 子 | 曰 不仁者는 不可以久處約이며 不可以長處樂이니 仁者는 安仁하고 知者는 利仁이니라 『論語諺解』 (04이인02)⁴¹⁾
- 예문14 : 子 | 曰 知者는 不惑하고 仁者는 不憂하고 勇者는 不懼 | 니라 『論語諺解』 (9자한28)⁴²⁾
- 예문15 : 子 | 曰 其身이 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이 不正이면 雖令不從이니라 『論語諺解』 (13자로6)⁴³⁾
- 예문16 : 子 | 曰 貧而無怨은 難하고 富而無驕는 易하니라 『論語諺解』 (14헌문11)⁴⁴⁾
- 예문17 : 子 | 曰 晉文公은 譎而不正하고 齊桓公은 正而不譎하니라 『論語諺解』 (14헌문16)⁴⁵⁾

예문7·8·9·10·11은 『論語』 중 君子와 小人을 대조하여 서술한 부분들로, 『論語諺解』의 懸吐이다. 이 예문들을 살펴보면 ‘周’와 ‘比’, ‘義’와 ‘利’, ‘和’와 ‘同’, ‘泰’와 ‘驕’, ‘上達’과 ‘下達’ 등의 단어가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고 전후 구절의 구조 또한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예문12·13·14·15·16·17 역시 ‘하고’의 따 전후의 구절이 긴밀한 對句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고’의 따는 待對 이외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다음은 『論語諺解』의 懸吐 중에 ‘하고’가 다른 의미로 쓰인 예이다.

-
- 37) 子曰 君子는 和而不同하고 小人은 同而不和 | 니라 『論語栗谷諺解』 (13자로23)
- 38) 子曰 君子는 泰而不驕하고 小人은 驕而不泰니라 『論語栗谷諺解』 (13자로26)
- 39) 子曰 君子는 上達하고 小人은 下達이니라 『論語栗谷諺解』 (14헌문24)
- 40) 子曰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 『論語栗谷諺解』 (2위정15)
- 41) 子曰 不仁者는 不可以久處約이며 不可以長處樂이니 仁者는 安仁하고 知者는 利仁이니라 『論語栗谷諺解』 (4이인2)
- 42) 子曰 知者不惑하고 仁者不憂하고 勇者不懼 | 니라 『論語栗谷諺解』 (9자한28)
- 43) 子曰 其身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不正이면 雖令不從이리라 『論語栗谷諺解』 (13자로6)
- 44) 子曰 貧而無怨은 難하고 富而無驕는 易하니라 『論語栗谷諺解』 (14헌문11)
- 45) 子曰 晉文公은 譎而不正하고 齊桓公은 正而不譎하니라 『論語栗谷諺解』 (14헌문16)

예문15 : 子 | 曰 事父母호대 幾諫이니 見志不從^하고 又敬不違하며 勞而不怨이니
라 『論語諺解』 (4이인18)46)

예문16 : 齊人이 歸女樂이어늘 季桓子 | 受之^하고 三日不朝한대 孔子 | 行하시다
『論語諺解』 (18미자4)47)

예문17 : 子 | 曰 道不行이라 乘桴하야 浮于海호리니 從我者는 其由與 | 저 子路
| 聞之^하고 喜한대 子 | 曰 由也는 好勇이 過我 | 나 無所取材로다 『論語
諺解』 (5공야장6)48)

위의 예문들의 ‘하’의 따는 ‘……하’고서, ‘……한 뒤에’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밝혀 주고 있을 뿐, 待對와는 상관이 없다.

◆4번 斷辭(중결하는 말)

해당 따 : 이라 이니라 하니라 하나니라 하다 이러라(이러시다) 하더라(하더시다) 이로다(이샷다) 하나다 하듯다 이랏다

이 항목의 懸吐들은 懸吐가 위치하는 곳의 앞뒤 구절의 사이에 단락이 지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 항목에 속하는 따로서 ‘이라’·‘이니라’·‘하니라’·‘하나니라’·‘하다’·‘이러라(이더시다)’·‘하더라(하더시다)’·‘이로다(이샷다)’·‘하나다’·‘하듯다’·‘이랏다’ 등 총 11종류의 따를 제시하였는데, 雙行小字에서 “이 따들은 斷辭라는 점은 같으나 따마다 각각 알맞은 쓰임이 있다.”라고 하여 다시 종류를 나누었다.⁴⁹⁾ 나뉜 斷辭의 종류를 표로 나타내면

46) 子曰 事父母호대 幾諫이니 見志不從^하고 又敬不違하며 勞而不怨이니라 『論語栗谷諺解』 (4이인18)

47) 齊人歸女樂하야늘 季桓子 | 受之^하고 三日不朝한대 孔子 | 行하시다 『論語栗谷諺解』 (18미자4)

48) 子曰 道不行이라한대 乘桴浮于海호리니 從我者는 其由與 | 저 子路 | 聞之喜한대 子曰 由也 | 好勇이 過我 | 나 無所取材로다 『論語栗谷諺解』 (5공야장6)

49) 「句讀解法」, “凡此斷辭雖同, 而其吐亦各有當. 如‘이라’者, 微絶之辭也; ‘이니라’者, 夫絶之辭也;

다음과 같다.

<구두해법 현도 분류 유형 중 斷辭의 종류>

	斷辭의 종류	해당 吐
1	微絶之辭 (가볍게 끊어지는 말)	이라
2	决絶之辭 (확실하게 끊어지는 말)	이나라
3	汎論以斷之辭 (泛然히 논하여 단정하는 말 /보편적인 진술로 단정하는 말)	하나나라
4	如政令詔除記錄之斷辭 (政令·詔除와 같은 記錄의 斷辭)	하다
5	如言論行事敘述之斷辭 (言論·行事와 같은 敘述의 斷辭)	이러라 하더라
6	游辭以斷之例 (가벼운 말로 단정하는 용례)	이로다

◆5번 直下之辭(곧장 내려오는 말)

해당 吐 : 이 은 는 을 의 이라 엔 엔 아

이 항목의 ‘直下之辭’라는 말은 ‘곧장 내려오는 말’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정확히 어떠한 특성에 근거하여 이름을 붙인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다만 ‘이’·‘은’·‘는’·‘을’·‘의’·‘이라’·‘엔’·‘엔’·‘아’ 등의 吐가 속해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말에서 格助詞의 역할을 하는 吐들을 분류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吐들의 특징은 名詞 혹은 名詞句나 名詞節의 뒤에 달려서 앞 구절이 뒤 구절에 대하여 어떠한 자격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은’·‘는’ 등의 吐는 앞 구절이 뒤 구절에 나오는 서술어에 대하여 주어가 됨을 보여주고, ‘을’은 목적어가 됨을, ‘의’는 관형어가 됨을, ‘엔’·‘엔’ 등은 부사어가 됨을 보여준다. 이 중에 쓰임이 다소 드문 ‘의’의 吐의 용례

‘하나나라’者, 汎論以斷之辭也; ‘하다’者, 如政令詔除記錄之斷辭也; ‘이러라’·‘하더라’者, 如言論行事敘述之斷辭也; ‘이로다’之類, 乃游辭以斷之例也.”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1 : 子 | 謂子貢曰 女與回也로 孰愈오 對曰 賜也는 何敢望回리잇고 回也는 聞一以知十하고 賜也는 聞一以知二하노이다 子 | 曰 弗如也 | 니라 吾與女의 弗如也하노라 『論語諺解』 (05공야장08)⁵⁰⁾

예문1은 『論語』 「公冶長」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子貢이 스스로를 顔回만 못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하여 孔子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뒷부분의 孔子의 말인 ‘吾與女弗如也’는 ‘與’字를 풀이함에 있어 견해의 차이가 있어 왔다. 첫 번째는 ‘與’를 앞에 나온 ‘女與回也孰愈’의 ‘與’와 같은 의미로 보아 ‘……와 함께’로 풀이하는 것이고,⁵¹⁾ 두 번째는 ‘與’를 ‘許與’의 의미로 풀이하는 것이다. 朱熹의 『論語集註』에서는 후자로 풀이하고 있고⁵²⁾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에서도 역시 『論語集註』에 의거하여 후자로 풀이하고 있다.⁵³⁾ 예문1은 후자로 풀이하였을 경우의 懸吐인데, ‘女’의 뒤에 ‘의’의 吐가 달려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吾與女弗如也’에서 주된 술어는 ‘與’가 되고 ‘女弗如’는 名詞節로서 ‘與’의 목적어가 되는데, ‘女’의 뒤에 달린 ‘의’의 吐가 ‘女’를 ‘弗如’라는 名詞句의 관형어로 만들어 준다. 반면에 전자로 풀이한다면 ‘女’의 뒤에는 ‘女與回也’의 뒤와 같이 ‘로’의 吐가 오게 되며, 주된 술어는 ‘與’가 아닌 ‘弗如’가 되고 ‘與女’는 ‘弗如’의 부사어가 된다. 이 예문1의 懸吐는 ‘의’의 吐를 활용하여 정밀한 해석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0) 子謂子貢曰 女與回也로 孰愈오 對曰 賜也 | 何敢望回리잇고 回也는 聞一以知十하고 賜也는 聞一以知二하노이다 子曰 弗如也니 吾與女弗如也하노라 『論語栗谷諺解』 (05공야장08)

51) 後漢의 經學家 包咸(B.C.7~65)은 ‘弗如也 吾與女弗如也’에 대하여 ‘既然子貢弗如, 復云吾與汝俱不如者, 蓋欲以慰子貢心也.’라고 해설하였다. 河晏, 『論語集解』 「公冶長」

52) 『論語集註』에서는 ‘吾與女弗如也’에 대하여 ‘與, 許也.’라고 해설하였다. 朱熹, 『論語集註』 「公冶長」

53) ‘吾與女弗如也’에 대하여 『論語諺解』에서는 ‘내 너의 겠디문호라홈을 與호노라’라고 諺解하였고, 『論語栗谷諺解』에서는 ‘내 너의 겠디아니타호물 與호노라’라고 諺解하였다.

예문2 : 曰 我는 知言하며 我는 善養吾의 浩然之氣하노라 『孟子諺解』(公孫丑上02)⁵⁴⁾

예문2는 『孟子』 「公孫丑上」의 내용에 대한 『孟子諺解』의 懸吐로, 『孟子』 본문은 公孫丑가 孟子의 不動心の 요점을 물은 것에 대하여 孟子가 답한 내용이다. 예문2의 懸吐를 보면 ‘我善養吾浩然之氣’의 구절 중 ‘吾’와 ‘浩然之氣’의 사이에 ‘의’의 吐가 달려있다. ‘吾浩然之氣’는 名詞句로서 ‘養’의 목적어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吾’와 ‘浩然之氣’가 모두 名詞의 성격을 띤다. 이때 ‘吾’의 뒤에 ‘의’로 懸吐함으로써 ‘吾’가 ‘浩然之氣’의 관형어가 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의 吐는 懸吐가 한문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밝혀주는 역할을 함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항목의 懸吐 중에 특이한 것은 종결사의 성격을 띤 ‘이라’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라’의 토는 4번 항목인 斷辭에도 속해 있는 것으로, 글의 단락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조사의 성격을 띤 直下之辭 내의 다른 吐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실마리는 「句讀解法」 3장 ‘一字二字例’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一字二字例 62개 항목 중에 ‘이라’ 吐의 용례가 보이는 것은 총 9개 항목인데⁵⁵⁾ 이 중에 10번 항목 ‘年’ 아래, 11번 항목 ‘一’·‘二’·‘十’·‘百’·‘千’·‘萬’ 아래, 39번 항목 ‘人’ 아래에 ‘이라’의 吐가 달린다고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10번 항목에서는 ‘年’·‘月’·‘日’·‘時’·‘世’·‘朝’·‘夕’ 등 시간과 관련된 글자의 아래에 달리는 吐로서 ‘에’를 말하고, 이어서 ‘年’의 아래

54) 曰 我는 知言하며 我는 善養吾浩然之氣하노라 『孟子栗谷諺解』(公孫丑上02)

55) 3번 항목 ‘然’ 위, 6번 항목 ‘故’·‘是故’·‘是以’ 위, 10번 항목 ‘年’ 아래, 11번 항목 ‘一’·‘二’·‘十’·‘百’·‘千’·‘萬’ 아래, 13번 항목 ‘非’ 아래, 14번 항목 ‘宜’·‘當’ 아래, 39번 항목 ‘人’ 아래, 41번 항목 ‘所’ 아래, 51번 항목 ‘不徒’·‘(不)但’·‘(不)獨’·‘(不)惟’·‘(不)特’·‘(不)直’·‘不是’·‘非是’ 아래

에 달리는 따로서 특별히 ‘이라’를 함께 말하였다. 또 11번 항목에서는 ‘一’·‘二’·‘十’·‘百’·‘千’·‘萬’ 등 數를 의미하는 글자의 아래에 달리는 따로서 ‘이라’와 ‘에’를 함께 말하였다. 39번 항목에서는 ‘人’의 위에 地名이 있을 경우에 그 아래에 달리는 따로서 ‘이라’를 말하였다. 一字二字例에서 용례를 들고 있는 글자들이 대체로 虛辭인 데에 반해, 이 세 항목에서 든 글자들은 모두 實辭로서 名詞의 성격을 갖는다. 이 세 항목에서 든 ‘이라’의 따는 名詞(혹은 名詞句나 名詞節) 아래에 달린다는 점에서 ‘이’·‘은’·‘는’·‘을’·‘의’·‘엔’·‘엔’ 등의 따들과 같은 특징으로 묶일 수 있을 듯하다.

◆6번 承上之辭(위를 잇는 말)

해당 따 : 이니(이시니) 하니(하시니)

이 항목의 ‘承上之辭’라는 말은 ‘위를 잇는 말’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역시 어떠한 특성에 근거하여 이름을 붙이고 따를 분류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다만 承上之辭의 순서가 直下之辭 다음에 위치한다는 점과 명칭이 直下之辭와 대조를 이룬다는 점으로 볼 때, 承上之辭와 直下之辭는 서로 상대되는 특징을 기준으로 懸吐를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⁵⁶⁾

이 항목에는 ‘이니(이시니)’·‘하니(하시니)’의 따가 속해 있는데, ‘하니’는 2번 항목인 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에도 ‘한대’·‘이어늘’과 함께 속해 있다. 이 항목에 소속된 ‘……니’類의 따들은 앞구절의 말이 단락 지어지면서도 뒷구절과 다소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9번 相反之辭(상반되는 말)

해당 따 : 이로대(이사대) 호대(하사대) 이어늘(이어서늘) 이어나와 커니와

56) 泛論之辭와 自稱之辭, 前日之辭와 將然之辭 역시 같은 경우로 생각된다.

이언마는(이어신마는) 하언마는 이리오마는(이시리오마는)

이 항목의 懸吐들은 懸吐가 위치하는 곳의 앞뒤 구절이 相反 혹은 逆接의 관계를 가질 때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예문을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문1 : 子 | 曰 泰伯은 其可謂至德也已矣로다 三以天下讓호대 民無得而稱焉이온여 『論語諺解』(08대백01)⁵⁷⁾

예문1은 『論語』 「泰伯」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泰伯을 칭송하는 孔子의 말이다. 孔子는 우선 泰伯을 ‘至德’이라고 이를 만하다고 칭송한 뒤에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焉’이라고 하여 그 까닭을 말하고 있다. 곧 세 차례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사양한 德이 있었으나 그 자취를 숨겨 백성들이 칭송할 수가 없게 하였다는 의미로, ‘三以天下讓’과 ‘民無得而稱焉’은 逆接의 관계를 갖는다. 이 경우에 이 항목에 속하는 ‘호대’의 吐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예문2 : 子 | 曰 誦詩三百호대 授之以政에 不達하며 使於四方에 不能專對하면 雖多 | 나 亦奚以爲리오 『論語諺解』(13자로05)⁵⁸⁾

예문2는 『論語』 「子路」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詩經』 삼백 편을 외우더라도 실제 政事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많이 외운들 소용이 없다는 孔子의 말이다. 『論語』 본문 중에 ‘誦詩三百’과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는 逆接의 관계를 갖는데 이 경우에도 ‘호대’의 吐

57) 子曰 泰伯은 其可謂至德也已矣로다 三以天下讓호대 民無得而稱焉이온여 『論語栗谷諺解』(08대백01)

58) 子曰 誦詩三百호대 授之以政에 不達하며 使於四方에 不能專對면 雖多 | 나 亦奚以爲리오 『論語栗谷諺解』(13자로05)

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호대’는 相反이나 逆接을 나타내는 경우 외에 인용하는 말이나 구체적인 행위를 언급할 때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관한 예문은 아래의 ‘(3)-16번 言語及行事在下文者上’ 항목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예문3 : 季氏 | 富於周公 이어늘 而求也 | 爲之聚斂而附益之한대 子 | 曰 非吾徒也 | 로소니 小子아 鳴鼓而攻之 | 可也 | 나라 『論語諺解』 (11선진16)⁵⁹⁾

예문3은 『論語』 「先秦」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魯나라의 大夫 季氏가 이미 분에 넘치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冉求가 그 家臣으로서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 富를 더해주자 孔子가 제자들에게 이를 聲討하게 하는 내용이다. 본문의 ‘季氏富於周公’과 ‘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는 逆接의 관계를 갖는데, 이 경우에 ‘이어늘’의 ㅌ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예문4 : 子 | 曰 三軍은 可奪帥也 | 어니와 匹夫는 不可奪志也 | 나라 『論語諺解』 (09자한25)⁶⁰⁾

예문4는 『論語』 「子罕」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三軍은 그 장수를 빼앗을 수 있지만 필부는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다는 孔子의 말이다. ‘三軍可奪帥也’와 ‘匹夫不可奪志也’는 서로 대비되는 구조로 逆接의 관계를 갖는데, 이 경우에 이 항목에 속하는 ‘어니와’의 ㅌ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예문5 : 冉求 | 曰 非不說子之道 | 인마는 力不足也 | 로이다 子 | 曰 力不足者는 中道而廢하나니 今女는 劃이로다 『論語諺解』 (06옹야10)⁶¹⁾

59) 季氏 | 富於周公 이어늘 而求也 | 爲之聚斂而附益之한대 子曰 非吾徒也 | 로소니 小子아 鳴鼓而攻之 | 可也 | 나라 『論語栗谷諺解』 (11선진16)

60) 子曰 三軍은 可奪帥也 | 어니와 匹夫는 不可奪志也 | 나라 『論語栗谷諺解』 (09자한25)

예문5는 『論語』 「雍也」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冉求가 孔子의 道를 좋아하지만 이를 따를 힘이 부족하다고 하자 孔子가 이에 대하여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는 것임을 깨우쳐 주는 내용이다. 冉求의 말 중에 ‘非不說子之道’와 ‘力不足也’는 逆接의 관계를 갖는데, 이 경우에 이 항목에 속하는 ‘이언마는’의 吐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예문6 : 子 | 曰 誰能出不由戶 | 리오마는 何莫由斯道也오 『論語諺解』 (06옹야15)⁶²⁾

예문6은 『論語』 「雍也」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道를 문[戶]에 비유하여 누구나 이 道를 통해야 함을 역설하는 孔子의 말이다. 본문 중 ‘誰能出不由戶’의 구절은 의문형의 문장으로 단락이 지어지면서 뒤의 ‘何莫由斯道也’의 구절과는 逆接의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에 ‘이리오마는’의 吐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이리오마는’은 ‘이리오’의 의문형 종결사와 ‘마는’의 逆接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렇게 두 개의 吐가 결합된 형태의 吐는 유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유형 분류에 관해서는 III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12번 歷言之辭(일일이 거론하는 말)

해당 吐 : 와 과 패로다

이 항목의 懸吐들은 懸吐가 위치하는 곳의 앞뒤 구절이 대등하게 나열되는

61) 冉求曰 非不說子之道 | 이언마는 力不足也 | 로이다 子曰 力不足者는 中道而廢하나니 今女는 畫이니라 『論語栗谷諺解』 (06옹야10)

62) 子曰 誰能出不由戶 | 리오마는 何莫由斯道也오 『論語栗谷諺解』 (06옹야15)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3번 待對駢偶之辭의 항목과 공통점이 있다. 다만 3번 待對駢偶之辭 항목의 懸吐들은 대체로 述語가 포함된 敍述節이 대등하게 나열될 때에 사용되는 반면에, 이 항목의 懸吐들은 名詞 혹은 名詞句나 名詞節이 대등하게 나열될 때에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名詞나 名詞句 · 名詞節 뒤에 달린다는 점에서는 5번 直下之辭 항목의 懸吐들과도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문을 통해 그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1 : 子 | 曰 賢哉라 回也 | 여 一簞食와 一瓢飲으로 在陋巷을 人不堪其憂 | 어 늘 回也 | 不改其樂하니 賢哉라 回也 | 여 『論語諺解』 (06옹야09)⁶³⁾

예문1은 『論語』 「雍也」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顔回가 궁핍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道를 궁구하는 즐거움이 변치 않는 것에 대하여 孔子가 감탄하는 내용이다. 본문의 중간에 ‘一簞食 一瓢飲’은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라는 뜻으로, 名詞句가 나열된 것인데, 이 경우에 예문1의 懸吐에는 ‘와’의吐가 달려있음을 볼 수 있다.

예문2 : 子 | 曰 德之不修와 學之不講과 聞義不能徙하며 不善不能改 | 是吾憂也 | 니라 『論語諺解』 (07술이03)

예문3 : 子曰 德之不修와 學之不講과 聞義不能徙와 不善不能改 | 是吾憂也 | 니라 『論語栗谷諺解』 (07술이03)

예문2·3은 『論語』 「述而」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孔子가 근심하는 바를 나열하는 내용이다.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의 부분이 바로 그 근심하는 바를 나열한 것인데, 예문2·3의 懸吐를 보면 ‘德之不修’와 ‘學之不講’은 명확한 名詞句로

63) 子曰 賢哉라 回也 | 여 一簞食와 一瓢飲으로 在陋巷을 人不堪其憂 | 어 늘 回也 | 不改其樂하니 賢哉라 回也 | 여 『論語栗谷諺解』 (06옹야09)

서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에서 모두 각 구절의 뒤에 ‘와’로懸吐하고 있다. 하지만 ‘聞義不能徙’와 ‘不善不能改’의 구절은 『論語諺解』의 경우 그 사이에 3번 待對駢偶之辭에 속하는 ‘하며’의 따를 달고 있다. 이는 이 두 구절이 앞의 ‘德之不修’·‘學之不講’과는 달리 敘述節의 구조를 띠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따를 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論語栗谷諺解』에서는 이 두 구절 역시 名詞節로 간주하여 ‘와’의 따를 달고 있다.

예문4 : 子 | 見齊衰者와 冕衣裳者와 與瞽者하시고 見之에 雖少 | 나 必作하시며 過之必趨 | 러시다 『論語諺解』 (09자한09)⁶⁴⁾

예문4는 『論語』 「子罕」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懸吐로, 『論語』 본문은 孔子가 喪을 당한 자와 관작이 높은 자와 신체가 불편한 자의 곁에 있을 적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본문 앞부분의 ‘子見齊衰者冕衣裳者與瞽者’의 구절은 ‘見’이 述語가 되고 ‘齊衰者冕衣裳者與瞽者’가 그 목적어가 되는데, ‘齊衰者冕衣裳者與瞽者’는 ‘齊衰者’, ‘冕衣裳者’, ‘瞽者’의 名詞 혹은 名詞句가 나열된 구조이다. 이 경우에도 나열된 名詞 혹은 名詞句의 뒤에 ‘와’의 따가 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항목에 속한 ‘과로다’의 따는 雙行小字에 斷辭의 例라고 하였는데,⁶⁵⁾ 그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懸吐 앞 구절의 특징에 따른 유형

◆7번 泛論之辭(泛然하게 논하는 말)

64) 子 | 見齊衰者와 冕衣裳者와 與瞽者하시고 見之雖少 | 나 必作하시며 過之必趨 | 러시다 『論語栗谷諺解』 (09자한09)

65) 「句讀解法」, “此, 斷辭之例也.”

해당 ㅌ : 하나니(하시나니) 或이나니(이시나니)

이 항목의 ‘泛論之辭’라는 말은 ‘泛然하게 논한 말’의 의미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른다. 이 항목에는 ‘하나니(하시나니)’ 1개의 ㅌ가 속해 있는데, 이 ㅌ는 (1)에 분류된 항목 중 6번 ‘承上之辭’에 중복되어 소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로서 ‘夫’·‘凡’·‘蓋’·‘大抵’ 등의 글자 아래의 末句에 달린다고 하였는데,⁶⁶⁾ 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1 : 夫君子之居喪에 食旨不甘하며 聞樂不樂하며 居處不安故로 不爲也 하나니
今女 | 安則爲之하라 『論語諺解』(17양화21)

예문2 : 夫達也者는 質直而好義하며 察言而觀色하여 慮以下人 하나니 在邦必達하며 在家必達이니라 夫聞也者는 色取仁而行違오 居之不疑 하나니 在邦必聞하며 在家必聞이니라 『論語諺解』(12안연20)

예문1은 『論語』 「陽貨」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孔子의 제자 宰我가 부모의 喪에 3년 동안이나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과 음악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며 喪期를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하자 孔子가 宰我를 책망하며 한 말이다.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는 君子는 보편적으로 부모의 喪을 당하면 애통함이 지극하기 때문에 저절로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음악과 편안한 거처를 멀리하게 되는 것임을 말 한 것이다. 문장 맨 앞의 ‘夫’라는 虛辭가 이 문장이 泛論의 語氣임을 더욱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렇게 泛論의 語氣를 띠는 경우에 문장 끝에 ‘하나니’의 ㅌ가 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2는 『論語』 「顔淵」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孔子가 선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통달함[達]’을 ‘명성이

66) 「句讀解法」, “泛論之辭……○‘夫’·‘凡’·‘蓋’·‘大抵’等字下末句同.”

남[聞]과 비교하여 설명한 말이다. ‘夫達也者 質直而好義 察言而觀色 慮以下人’은 ‘통달함[達]’이 갖는 보편적인 특징을 말한 것이고, ‘夫聞也者 色取仁而行違 居之不疑’는 ‘명성이 남[聞]’이 갖는 보편적인 특징을 ‘통달함[達]’과 대비시켜 말한 것이다. 역시 이 예문에서도 ‘夫’라는 虛辭가 ‘하나니’의 ㅌ와 호응하고 있다.

한편 이 항목에는 ‘하나니’ 1개의 토만 속해 있지만 ‘泛論’의 語氣를 드러내 주는 다음의 토들을 추가로 보충해 넣을 수 있을 듯하다.

-‘하나니라’

이 토는 ‘하나니’의 종결형으로 4번 ‘斷辭’ 항목에도 속해 있는데, 그 雙行小字에서는 특별히 ‘범연히 논하여 단정하는 말[汎論以斷之辭]’로 분류하고 있다. 곧 보편인 사실을 논하는 말 뒤에 달리는 토임을 알 수 있다.

-‘이니’

이 토 역시 보편적인 사실을 말하는 말 뒤에 자주 사용되며, ‘하나니’와 유사한 語氣를 띠는데,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문3 : 知者는 樂水하고 仁者는 樂山 이니

知한 者는 水를 悅히 너기고 仁한 者는 山을 悅히 너기나니 『論語諺解』 (6옹야21)

예문4 : 知者는 樂水하고 仁者는 樂山 하나니

知者는 水를 樂하고 仁者는 山을 樂하나니 『論語栗谷諺解』 (6옹야21)

예문5 : 君子는 尊賢而容衆하며 嘉善而矜不能 이니

君子는 賢을 尊하고 衆을 容하며 善을 嘉하고 不能을 矜하나니 『論語諺解』 (19자장3)

예문6 : 君子는 尊賢而容衆하며 嘉善而矜不能 하나니

君子는 賢을 尊하고 衆을 容하며 善을 嘉하고 不能을 矜하나니 『論語栗谷諺解』 (19자장3)

예문3·4는 『論語』 「雍也」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의

懸吐와 諺解文으로, 『論語』 본문은 知者와 仁者의 보편적인 특징을 설명한 孔子의 말인데, 『論語諺解』의 懸吐에는 끝에 ‘이니’의 吐가 달려 있고, 『論語栗谷諺解』의 懸吐에는 ‘하나니’의 吐가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 대한 諺解文을 살펴보면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의 풀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예문5·6은 『論語』 「子張」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와 『論語栗谷諺解』의 懸吐와 諺解文으로, 『論語』 본문은 君子의 보편적인 특징을 설명한 子張의 말이다. 이 예문을 보면 『論語諺解』의 懸吐는 ‘이니’가, 『論語栗谷諺解』의 懸吐는 ‘하나니’가 달려 있는데, 諺解의 풀이를 보면 두 諺解書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니’의 吐가 ‘하나니’의 吐와 유사하게 쓰임을 알 수 있다.

◆8번 自稱之辭(자신을 일컫는 말)

해당 吐 : 하노니 이로니 하노라(하노이다) 이로라(이로이다) 호니 호라(호이다) 일가하노니

이 항목은 話者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경우에 달리는 吐를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 항목의 吐 중에 ‘하노니’·‘이로니’·‘호니’ 등은 6번 ‘承上之辭’ 혹은 2번 ‘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에 중복되어 소속될 수 있고, ‘하노라(하노이다)’·‘이로라(이로이다)’·‘호라(호이다)’ 등은 4번 斷辭에 중복되어 소속될 수 있다.⁶⁷⁾ 이 항목의 吐들은 ‘請’·‘願’·‘竊’·‘自’·‘愚’·‘欲’·‘敢’·‘恐’·‘乞’·‘望’ 등의 글자 아래의 末句에 달리며, 특히 ‘恐’ 아래에는 ‘일가하노니’의 吐가 달린다고 하였다.⁶⁸⁾

이에 대한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67) 이는 「句讀解法」에 언급된 내용이다. “自稱之辭……○如‘하노니’之類, 承上或他義相承之例也. ‘하노라’之類, 乃亦斷辭之例也.”

68) 「句讀解法」, “自稱之辭……○‘請’·‘願’·‘竊’·‘自’·‘愚’·‘欲’·‘敢’·‘恐’等字下末句同. ‘恐’字下, ‘일가하노니.’ “[補]‘乞’·‘望’字下亦同.”

- 예문1 : 曾子 | 曰 吾 | 日三省吾身하노니 爲人謀而不忠乎아 與朋友交而不信乎아 傳不習乎애니라 『論語諺解』 (01학이04)⁶⁹⁾
- 예문2 : 子 | 曰 述而不作하며 信而好古를 竊比於我老彭하노라 (07술이01)⁷⁰⁾
- 예문3 : 子 | 曰 自行束脩以上은 吾未嘗無誨焉이로라 (07술이07)⁷¹⁾
- 예문4 : 子 | 曰 吾 | 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而從心所欲하야 不踰矩호라 (02위정04)⁷²⁾
- 예문5 : 子 | 曰 吾嘗終日不食하며 終夜不寢하야 以思호니 無益이라 不如學也 | 로다 (15위령공)⁷³⁾

예문1은 『論語』 「學而」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懸吐로, 『論語』 본문은 曾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세 가지 사항을 기술한 내용이다. ‘吾日三省吾身’은 曾子가 자신의 일을 말한 것인데, 이 경우에 ‘하노니’의 吐가 달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문2는 『論語』 「述而」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懸吐로, 『論語』 본문은 孔子가 자기 자신을 옛 賢人인 老彭에 견주며 한 말이다.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의 문장은 주어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竊’ 등의 虛字를 통하여 그 주어가 話者인 孔子 자신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 항목에 속하는 ‘하노라’의 吐가 달렸다. 예문3과 예문4는 각각 『論語』 「述而」와 「爲政」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懸吐로, 『論語』 본문은 모두 자기 자신에 관하여 기술한 孔子의 말이다. 이 경우에도 이 항목에 속하는 ‘이로라’와 ‘호라’의 吐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예문5는 『論語』 「衛靈公」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懸吐로, 『論語』 본문 가운데 ‘吾嘗終

69) 曾子曰 吾 | 日三省吾身하노니 爲人謀而不忠乎아 與朋友交而不信乎아 傳不習乎애니라 『論語栗谷諺解』 (01학이04)

70) 子曰 述而不作하며 信而好古를 竊比於我老彭하노라 『論語栗谷諺解』 (07술이01)

71) 子曰 自行束脩以上은 吾未嘗無誨焉이로라 『論語栗谷諺解』 (07술이07)

72) 子曰 吾 | 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而從心所欲호대 不踰矩호라 『論語栗谷諺解』 (02위정04)

73) 子曰 吾嘗終日不食하며 終夜不寢하야 以思호니 無益이라 不如學也 | 로다 『論語栗谷諺解』 (15위령공)

日不食 終夜不寢以思'는 孔子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 내용이다. 이 경우에도 이 항목에 속하는 '호니'의 ㅌ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10번 前日之辭(과거에 대한 말)

해당 ㅌ : 이러니(이러시니) 하더니(하더시니) 이라가 하다가 이러니라(이러시니이다) 하더니라(하더시니이다) 이어늘

이 항목은 '前日', 곧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경우에 달리는 ㅌ를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 항목의 ㅌ 중에 '이러니(이러시니)'·'하더니(하더시니)'·'이어늘' 등은 (1)에 분류된 항목 중 2번 '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 혹은 6번 '承上之辭'에 중복되어 소속될 수 있고, '이러니라(이러시니이다)'·'하더니라(하더시니이다)' 등은 4번 '斷辭'에 중복되어 소속될 수 있다. 다만 이 항목 중 '이라가'·'하다가'는 (1)에 소속된 항목이 없다. 또 이 항목의 ㅌ들은 '今'·'後'·'及'·'會' 등의 글자 위와 '久'·'初'·'始' 등의 글자 아래의 末句에 달리는데, 특히 '今'자 위에는 '이어늘'의 ㅌ가 달리고 '尋'·'旋'·'還'·'乍' 등의 글자 위와 '方' 등의 글자 아래의 末句에는 '이러가'·'하다가'의 ㅌ가 달린다고 하였다.⁷⁴⁾

이중 '이러니'와 '이러니라'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문1 : 子 | 曰 古之學者는 爲己러니 今之學者는 爲人이로다 (14헌문25)⁷⁵⁾

예문2 : 子 | 曰 古者에 民有三疾이러니 今也엔 或是之亡也 | 로다 古之狂也는 肆 | 러니 今之狂也는 蕩이오 古之矜也는 廉이러니 今之矜也는 忿戾 | 오 古之愚也는 直이러니 今之愚也는 詐而已矣로다 (17양화16)⁷⁶⁾

74) 「句讀解法」, “前日之辭……○‘今’·‘後’·‘及’等字上, ‘久’字下, 亦同. ‘今’字上, ‘이어늘’. ○‘尋’·‘旋’·‘還’·‘乍’等字上, ‘方’字下, ‘이러가’·‘하다가’. [補]‘會’字上, ‘初’·‘始’字下末句, 亦同.”

75) 子曰 古之學者는 爲己러니 今之學者는 爲人이로다 『論語栗谷諺解』(14헌문25)

76) 子曰 古者民有三疾이러니 今也或是之亡也 | 로다 古之狂也肆 | 러니 今之狂也蕩하고 古之矜也廉이러니 今之矜也忿戾하고 古之愚也直이러니 今之愚也詐而已矣로다 『論語栗谷諺解』(17

예문3 : 曾子 | 曰 以能으로 問於不能하며 以多로 問於寡하며 有若無하며 實若虛하며 犯而不校를 昔者吾友 | 嘗從事於斯矣 러니라 (08대백05)⁷⁷⁾

예문1은 『論語』 「憲問」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옛날의 學者와 지금의 學者를 비교하는 孔子의 말이다. 앞부분의 ‘古之學者爲己’는 지금의 일에 대비하여 과거의 일을 기술한 것인데, 이 경우에 ‘이러니/러니’의 吐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예문2는 『論語』 「陽貨」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는 孔子의 말이다. 이 예문 역시 지금의 일에 대비하여 과거의 일을 기술한 ‘古者民有三疾’, ‘古之狂也肆’, ‘古之矜也廉’, ‘古之愚也直’의 구절의 뒤에는 모두 ‘이러니/러니’의 吐가 달려있다. 예문3은 『論語』 「泰伯」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曾子가 옛날 자신의 벗의 훌륭함을 회상하는 말인데, 이 경우 역시 과거의 일을 말한 것이므로 문장의 끝에는 ‘러니라’의 吐로 종결하고 있다.

◆11번 將然之辭(미래에 대한 말)

해당 吐 : 할새(하실새)

이 항목은 ‘장차 있을 일’, 곧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경우에 달리는 吐를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 항목에는 오직 ‘할새(하실새)’ 1개의 吐가 소속되어 있지만, 이 항목을 앞의 ‘前日之辭’와 대비하여 미래의 時制를 나타내는 吐를 분류해 놓은 것으로 본다면 ‘이리니’·‘하리니’·‘이리라’·‘하리라’ 등의 吐도 함께 소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항목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로서 ‘將’의 아래를 들고 있는데, 雙行小字에는 장래·후래에 대한 말과 ‘則’·‘必’ 등의 아래

양화16)

77) 曾子曰 以能問於不能하며 以多問於寡하며 有若無하며 實若虛하며 犯而不校를 昔者吾友 | 嘗從事於斯矣 러니라 『論語栗谷諺解』 (08대백05)

도 같은 종류라고 하였다.⁷⁸⁾ 3장 ‘一字二字例’의 2번 항목에서 ‘則’·‘必’·‘便’ 등의 글자 아래에 ‘하리니’·‘이리니’·‘이니’·‘하리라’·‘이리라’ 등의 따가 달린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이 따들이 함께 소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 따들을 포함하여 例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1 : 子 | 曰 孟之反은 不伐이로다 奔而殿하야 將入門할새 策其馬曰 非敢後也 | 라 馬不進也 | 라하니라 『論語諺解』 (06옹야13)⁷⁹⁾

예문2 : 冉有 | 曰 夫子 | 爲衛君乎아 子貢이 曰 諾다 吾將問之호리라 入曰 伯夷叔齊는 何人也 | 잇고 曰 古之賢人也 | 니라 曰 怨乎 | 잇가 曰 求仁而得仁이어니 又何怨이리오 出曰 夫子 | 不爲也 | 시리리라 『論語諺解』 (07술이14)⁸⁰⁾

예문1은 『論語』 「雍也」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孔子가 孟之反이라는 장수가 전투에서 자신의 功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을 칭찬하여 한 말이다. ‘奔而殿 將入門’은 孟之反이 전투에서 패하고 퇴각하면서 군대의 후미에 있다가 장차 城門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즉 ‘入門’은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되는데, 이 경우에 『論語諺解』에는 ‘할새’의 따를 달고 있다. 또한 ‘할새’의 따가 ‘將’字와 호응하여 사용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예문2는 『論語』 「述而」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冉有가 孔子가 衛나라 군주를 도울 것인지를 궁금해 하자 子貢이 이에 동의하고는 孔子에게 나아가 옛 賢人인 伯夷·叔齊를 들어 우회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다. ‘吾將問之’는 子貢의 말로, 앞으로 자신이 할 행위를 말한 것

78) 「句讀解法」, “將然之辭……○‘將’字下亦同 ○將來後來之辭與‘則’·‘必’字下同. 當詳見于下.”

79) 子曰 孟之反은 不伐이로다 奔而殿할새 將入門에 策其馬曰 非敢後也 | 라 馬不進也 | 라하니라 『論語栗谷諺解』 (06옹야13)

80) 冉有曰 夫子 | 爲衛君乎아 子貢曰 諾다 吾將問之호리라 入曰 伯夷叔齊는 何人也 | 잇고 曰 古之賢人也 | 니라 曰 怨乎 | 잇가 曰 求仁而得仁이어니 又何怨이리오 出曰 夫子 | 不爲也 | 시리리라 『論語栗谷諺解』 (07술이14)

인데, 역시 ‘問之’라는 행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 경우에 ‘호리라’의 따가 달려 있는데, ‘호리라’는 (1)의 4번 斷辭에 속하는 따로, (2)의 8번 自稱之辭를 비롯하여 이 항목에도 중복되어 소속될 수 있다. 이 예문의 ‘호리라’의 따도 역시 ‘將’字와의 호응을 보인다.

한편 ‘할새’의 따는 ‘將’字와 호응하여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에 쓰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할 때에’로 풀이되는 구절의 뒤에 흔히 쓰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문3 : 入公門하실새 鞠躬如也하사 如不容이러시다 立不中門하시며 行不履闕이러시다 過位하실새 色勃如也하시며 足躓如也하시며 其言이 似不足者 | 러시다 攝齊升堂하실새 鞠躬如也하시며 屏氣하사 似不息者 | 러시다 出降一等하사는 逞顏色하사 怡怡如也하시며 沒階하사는 趨進翼如也하시며 復其位하사는 蹶蹶如也 | 러시다 『論語諺解』 (10향당04)⁸¹⁾

예문3은 『論語』 「鄉黨」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朝廷에 있을 때에 보이는 엄숙하고 공경스러운 孔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入公門’, ‘過位’, ‘攝齊升堂’의 구절 뒤에 모두 ‘할새’의 尊稱인 ‘하실새’의 따가 달려 있다. 이 구절들의 행위는 미래의 시제가 아니라 뒤 구절의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같은 『論語』 본문에 대한 『論語栗谷諺解』의 懸吐에는 ‘하실새’의 자리에 모두 ‘에’의 따가 달려 있다. ‘할새’의 따는 格助詞 성격의 따인 ‘에’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3번 禁止之辭(금지하는 말)

해당 따 : 하라(하소서) 이어다 하라하더라

81) 入公門에 鞠躬如也하사 如不容하시며 立不中門하시며 行不履闕이러시다 過位에 色勃如也하시며 足躓如也하시며 其言이 似不足者 | 러시다 攝齊升堂에 鞠躬如也하시며 屏氣似不息者 | 러시다 出降一等하산 逞顏色하사 怡怡如也하시며 沒階하산 趨進翼如也하시며 復其位하산 蹶蹶如也 | 러시다 『論語栗谷諺解』 (10향당04)

이 항목은 금지하는 말 뒤에 달리는 따를 분류해 놓은 것으로, ‘하라(하소서)’·‘이어다’·‘하라하더라’ 세 개의 따를 들고 있다. 또 구체적인 예시로서 ‘莫’·‘勿’·‘毋’·‘無’·‘請’·‘願’·‘慎’·‘勉’·‘乞’·‘望’·‘須’ 등의 글자 아래를 들고 있고 특별히 ‘詔制之辭’의 아래 末句에는 ‘하라’의 따가 달린다고 하였다.⁸²⁾ 그러나 소속된 3개 따의 쓰임을 살펴보면 ‘금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명령’ 어조의 말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해당 따들이 사용된 예이다.

- 예문1 : 子 | 謂子夏曰 女爲君子儒 | 오 無爲小人儒 하라 『論語諺解』 (06옹야11)⁸³⁾
 예문2 : 季氏 | 使閔子騫爲費宰한대 閔子騫曰 善爲我辭焉 하라 如有復我者 | 則 則吾 | 必在汶上矣로리라 『論語諺解』 (06옹야07)⁸⁴⁾
 예문3 : 曾子 | 有疾하사 召門弟子曰 啓予足하며 啓予手 하라 詩云 戰戰兢兢하야 如臨深淵하며 如履薄氷이라하니 而今而後에아 吾知免夫 | 와라 小子아 『論語諺解』 (08태백03)⁸⁵⁾
 예문4 : 楚狂接輿 | 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여 何德之衰오 往者는 不可諫이어나와 來者는 猶可追 | 니 已而已而 이다 今之從政者 | 殆而니라 孔子 | 下하사 欲與之言이러시니 趨而辟之하니 不得與之言하시다 『論語諺解』 (18미자05)⁸⁶⁾

예문1은 『論語』 「雍也」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懸吐로, 『論語』 본문은 孔子가 子夏에게 ‘小人儒’가 되지 말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 문장의

82) 「句讀解法」, “禁止之辭……○‘莫’·‘勿’·‘毋’·‘無’·‘請’·‘願’·‘慎’·‘勉’·‘乞’·‘望’·‘須’等字 下亦同. ○ 詔制之辭末句, ‘하라.’”
 83) 子謂子夏曰 女爲君子儒 | 오 無爲小人儒 하라 『論語栗谷諺解』 (06옹야11)
 84) 季氏 | 使閔子騫爲費宰한대 閔子騫曰 善爲我辭焉 하라 如有復我者 | 則 則吾必在汶上矣로리라 『論語栗谷諺解』 (06옹야07)
 85) 曾子 | 有疾하사 召門弟子曰 啓予足하며 啓予手 하라 詩云 戰戰兢兢하야 如臨深淵하며 如履薄氷이라하니 而今而後에아 吾知免夫 | 와라 小子아 『論語栗谷諺解』 (08태백03)
 86) 楚狂接輿 | 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여 何德之衰오 往者는 不可諫이어나와 來者猶可追 | 니 已而已而 이다 今之從政者殆而니라 孔子 | 下하사 欲與之言이러시니 趨而辟之하니 不得與之言하시다 『論語栗谷諺解』 (18미자05)

끝에는 ‘하라’의 ㅌ가 달려 있는데, 이 항목의 명칭처럼 ‘금지하는 말’에 해당 ㅌ가 달린 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2·3·4는 각각 『論語』 「雍也」·「泰伯」·「微子」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인데, 모두 이 항목에 속하는 ‘하라’·‘어다’의 ㅌ가 달려 있지만 ‘금지’의 語氣를 띠지는 않는다. 이 항목에 분류된 ㅌ들은 전반적인 ‘명령’ 어조의 말 뒤에 달림을 확인할 수 있다.

(3)인용과 관련된 유형

◆14번 引古語及他人言之辭(옛말과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말)

해당 ㅌ : 이라하니(이라하시니) 이라하고(이라하시고) 이라하야(이라하사) 이라하야늘(이라하야시늘) 이라하나니(이라하시나니) 이라하야든(이라하야시든) 이라하더라(이라하더이다/이라하더시다) 오하야든 고하야든 이리오하야든

이 항목은 옛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懸吐들을 분류해 놓았는데, 이 항목에 해당하는 ㅌ들은 두 개의 ㅌ가 중첩된 형태를 갖고 있다. 4번 斷辭에 해당하는 ‘이라’, 혹은 ‘오’·‘고’·‘이리오’ 등 각종 의문형의 종결사에 ‘하니’·‘하고’·‘하야’·‘하야늘’·‘하나니’·‘하야든’·‘하더라’ 등 앞뒤 구절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의 토가 결합할 수 있다. 앞의 인용문이 평서문이라면 ‘이라’의 형태와 결합하고 의문문이라면 ‘오’·‘고’·‘이리오’ 등의 형태와 결합한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ㅌ들은 뒤의 ㅌ에 따라 (1)번의 분류 유형에 중복하여 소속될 수 있다. 예컨대 ‘이라하니’와 ‘이라하나니’는 6번 承上之辭에, ‘이라하고’는 3번 待對駢偶之辭에, ‘이라

하야’는 1번 凡一意相承及一人之事에, ‘이라하더라’는 4번 斷辭에 중복하여 소속될 수 있다.

◆15번 自言之辭(자신의 말을 나타내는 말)

해당 吐 : 이라호니 이라하노니 이라호라(이라하이다) 이라하노라(이라하노이다)

이 항목에 속한 懸吐들은 14번 引古語及他人言之辭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懸吐가 중첩된 형태를 갖고 있고 (1)번의 분류 유형에 중복하여 소속될 수 있다. 예컨대 ‘이라호니’와 ‘이라하노니’는 6번 承上之辭에, ‘이라호라’와 ‘이라하노라’는 4번 斷辭에 중복하여 소속될 수 있다. 다만 14번 항목과 다른 이 항목의 특징은 뒤에 결합하는 懸吐가 8번 自稱之辭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항목에 속한 懸吐의 앞에 오는 내용은 話者 자신이 한 말이 된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과 같다.

예문1 : 孟懿子 | 問孝한대 子曰 無違니라 樊遲 | 御 | 러니 子曰 告之曰 孟孫이 問孝於我 | 어늘 我 | 對曰 無違라호라 『論語諺解』(02爲政05)⁸⁷⁾

예문1은 『論語』 「爲政」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로, 『論語』 본문은 孔子가 제자 樊遲에게 말하는 내용이다. 일찍이 孟懿子가 孔子에게 孝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孔子가 “어김이 없는 것이다.[無違]”라고 답하였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 예문1의 懸吐를 보면 孔子가 자신이 과거에 한 말을 인용하는 구절인 ‘無違’의 뒤에 ‘라호라’라는 吐가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7) 孟懿子 | 問孝한대 子曰 無違니라 樊遲 | 御 | 러니 子曰 告之曰 孟孫이 問孝於我 | 어늘 我 | 對曰 無違라호라 樊遲曰何謂也 | 잇고 子曰 生事之以禮하며 死葬之以禮하며 祭之以禮니라 『論語栗谷諺解』(02爲政05)

예문2 : 孟子 | 見梁襄王하시고 出語人曰 望之不似人君이오 就之而不見所畏焉이러니 卒然問曰 天下는 惡乎定고하야늘 吾 | 對曰 定于一이라호라 孰能一之오하야늘 對曰 不嗜殺人者 | 能一之라호라 孰能與之오하야늘 對曰 天下 | 莫不與也 | 니 王은 知夫苗乎 | 잇가 七八月之間이 旱則苗 | 槁矣라가 天이 油然作雲하야 沛然下雨則苗 | 淳然興之矣나니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오 今夫天下之人牧이 未有不嗜殺人者也 | 니 如有不嗜殺人者則天下之民이 皆引領而望之矣리니 誠如是也 | 면 民歸之 | 由水之就下하리니 沛然을 孰能禦之리오호라 『孟子諺解』(梁惠王 上 06)⁸⁸⁾

예문2는 『孟子』 「梁惠王 上」의 내용에 대한 『孟子諺解』의 懸吐이다. 『孟子』의 본문은 孟子가 梁惠王을 알현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梁惠王과 나눈 대화를 말하는 내용이다. 이 중에 梁惠王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孟子가 대답한 말을 스스로 인용하는 형태가 세 차례 보이는데, 바로 ‘定于一’, ‘不嗜殺人者能一之’, ‘天下莫不與也……沛然孰能禦之’의 구절이다. 예문2에는 이 구절들의 뒤에 ‘라호라/이라호라’와 ‘리오호라’의 懸吐가 달려있음을 볼 수 있다. ‘리오호라’는 의문문의 인용문 뒤에 달리는 형태로, 「句讀解法」의 이 항목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함께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論語諺解』와 『孟子諺解』에는 ‘라호니’·‘라호라’ 형태의 懸吐가 자신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이 들은 말을 인용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예문3 : 子 | 曰 赤之適齊也에 乘肥馬하며 衣輕裘하니 吾는 聞之也호니 君子는

88) 孟子 | 見梁襄王하시고 出語人曰 望之不似人君이오 就之而不見所畏焉이러니 卒然問曰 天下 惡乎定고하야늘 吾對曰 定于一이라호라 孰能一之오하야늘 對曰 不嗜殺人者 | 아 能一之라호라 孰能與之오하야늘 對曰 天下莫不與也 | 리이다 王이 知夫苗乎잇가 七八月之間이 旱이면 則苗槁矣라가 天이 油然作雲하야 沛然下雨하면 則苗淳然興之矣나니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잇고 今夫天下之人牧이 未有不嗜殺人者也 | 니 如有不嗜殺人者 | 면 則天下之民이 皆引領而望之矣리니 誠如是也 | 면 民歸之 | 由水之就下하리니 沛然孰能禦之리잇고호라 『孟子栗谷諺解』 (梁惠王 上 06)

周急이오 不繼富 이라호라 『論語諺解』(6옹야03)⁸⁹⁾

예문4 : 孔子 | 曰 求아 君子는 疾夫舍曰欲之오 而必爲之辭 | 니라 丘也는 聞有國
有家者 | 不患寡而患不均하며 不患貧而患不安 이라호니 蓋均이면 無貧이
오 和 | 면 無寡 | 오 安이면 無傾이니라 『論語諺解』(16계씨01)⁹⁰⁾

예문3은 『論語諺解』 「述而」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懸吐이다. 『論語』 본문은 孔子를 위해 齊나라로 심부름을 떠난 子華를 위해 冉有가 곡식을 더 줄 것을 청하자 孔子가 자신이 들은 말을 인용하면서 冉有를 타이른 것인데, ‘君子周急 不繼富’가 바로 들은 말을 인용한 구절이다. 예문1을 보면 이 구절 뒤에도 ‘이라호라’의 吐가 달려있다.

예문4는 『論語諺解』 「季氏」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懸吐인데, 『論語』 본문은 冉有가 顓臾를 정벌하려는 季氏를 옹호하자 孔子가 이를 경계하며 훈계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의 구절이 孔子 자신이 들은 말을 인용한 부분인데, 역시 뒤에 ‘이라호니’의 吐가 달려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예문들 외에도 『論語諺解』와 『孟子諺解』에서는 ‘자신을 지칭하는 말 + 聞 + 인용하는 말’의 형태일 경우에 끝에 ‘이라호니’·‘이라호라’ 등으로懸吐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論語栗谷諺解』와 『孟子栗谷諺解』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경우에 ‘이라하니’·‘이라하니라’의 형태로懸吐하였다.

◆16번 言語及行事在下文者上(언어와 행위가 아래 글에 있는 경우)

해당 吐 : 호대(하사대) 혼대

89) 子曰 赤之適齊也에 乘肥馬하며 衣輕裘하니 吾聞之也호니 君子는 周急이오 不繼富 이라하니라 『論語栗谷諺解』(6옹야03)

90) 孔子曰 求아 君子는 疾夫舍曰欲之오 而必爲之辭 | 니라 丘也聞호니 有國有家者는 不患寡而患不均하며 不患貧而患不安 이라하니 蓋均無貧이오 和無寡 | 오 安無傾이니라 『論語栗谷諺解』(16계씨01)

이 항목의 懸吐들은 ‘아래 글에 말이 이어지는 경우’와 ‘아래 글에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 두 가지로 쓰임을 나눌 수 있는데, 말이 이어지는 경우는 인용문과 관련된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위의 14번·15번 항목과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14번·15번 항목의 懸吐들은 인용문이 끝나는 구절의 뒤에 달리는 반면에 이 항목의 懸吐들은 인용문이 시작되는 구절의 앞에 달린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인용문의 앞에는 대체로 ‘曰’·‘云’ 등의 글자가 있는데, 대개 이러한 글자들이 생략된 경우에 이 항목의 吐가 달린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예문1 : 萬章이 問曰 人이 有言호대 至於禹而德衰하야 不傳於賢而傳於子 | 라하
 니 有諸잇가 『孟子諺解』(萬章 上 06)⁹¹⁾

예문2 : 萬章이 問曰 人이 有言호대 伊尹이 以割烹要湯이라하니 有諸잇가 『孟子
 諺解』(萬章 上 07)⁹²⁾

예문1·2는 『孟子』 「萬章 上」의 내용에 대한 『孟子諺解』의 懸吐로, 『孟子』 본문은 萬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孟子에게 정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예문1에서는 ‘至於禹而德衰 不傳於賢而傳於子’가, 예문2에서는 ‘伊尹以割烹要湯’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인데, 모두 앞에 ‘호대’의 吐가 달려있다. 앞에 ‘曰’ 등의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인용의 성격을 띠며, 인용이 시작되는 부분이 명확하다. 반면 위의 예문과 같이 ‘曰’ 등의 글자가 생략된 경우에는 간접인용의 성격을 띠며, 한문의 문법을 따져 볼 때 인용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句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호대’의 吐는 인용이 시작되는 부분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이라하니’ 등 14·15번 항목의 懸吐와 호응하여

91) 萬章이 問曰 人有言호대 至於禹而德衰하야 不傳於賢而傳於子 | 라하니 有諸잇가 『孟子栗谷諺解』(만장 상 06)

92) 萬章이 問曰 人有言호대 伊尹이 以割烹要湯이라하니 有諸잇가 『孟子栗谷諺解』(만장 상 07)

사용될 경우에 인용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드러내 줄 수 있다.

『論語』의 諺解書에서는 ‘호대’의 尊稱인 ‘하사대’의 ㅌ가 위와 같은 역할로서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는데,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문3 : 孔子 | 謂季氏하사대 八佾舞於庭하니 是可忍也 | 온 孰不可忍也 | 리오 『論語諺解』 (03팔일01)⁹³⁾

예문4 : 子 | 謂韶하사대 盡美矣오 又盡善也 | 라하시고 謂武하사대 盡美矣오 未盡善也 | 라하시다 『論語諺解』 (03팔일25)⁹⁴⁾

예문5 : 子 | 謂公冶長하사대 可妻也 | 로다 雖在縷緘之中이나 非其罪也 | 라하시고 以其子로 妻之하시다 子 | 謂南容하사대 邦有道에 不廢하며 邦無道에 免於刑戮이라하시고 以其兄之子로 妻之하시다 『論語諺解』 (05공야장01)⁹⁵⁾

예문3·4·5는 말하는 행위의 주체인 孔子를 높여서 尊稱인 ‘하사대’의 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예문들 역시 ‘曰’ 등의 글자가 생략된, 간접인용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인용이 시작되는 구절의 앞에 ‘하사대’의 ㅌ가 달려있음으로써 인용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 ‘아래 글에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6 : 子 | 曰 道千乘之國호대 敬事而信하며 節用而愛人하며 使民以時니라 『論語諺解』 (01학이05)⁹⁶⁾

예문7 : 子夏 | 曰 賢賢호대 易色하며 事父母호대 能竭其力하며 事君호대 能致其身하며 與朋友交호대 言而有信이면 雖曰未學이라도 吾必謂之學矣라호리라 『論語諺解』 (01학이07)⁹⁷⁾

93) 孔子 | 謂季氏하사대 八佾舞於庭하니 是可忍也 | 온 孰不可忍也 | 리오 『論語栗谷諺解』 (03팔일01)

94) 子 | 謂韶하사대 盡美矣며 又盡善也 | 라하시고 謂武하사대 盡美矣오 未盡善也 | 라하시다 『論語栗谷諺解』 (03팔일25)

95) 子謂公冶長하사대 可妻也 | 니 雖在縷緘之中이나 非其罪也 | 라하시고 以其子妻之하시다 子謂南容하사대 邦有道에 不廢하고 邦無道에 免於刑戮이라하시고 以其兄之子妻之하시다 『論語栗谷諺解』 (05공야장01)

96) 子曰 道千乘之國호대 敬事而信하며 節用而愛人하며 使民以時니라 『論語栗谷諺解』 (01학이05)

예문8 : 子 | 曰 臧文仲이 居蔡호대 山節藻梲하니 何如其知也 | 리오 『論語諺解』
(05공야장17)⁹⁸⁾

예문6·7은 『論語』 「爲政」, 예문8은 「公治長」의 내용에 대한 『論語諺解』의 懸吐이다. 예문6의 『論語』 본문은 孔子의 말로, ‘千乘之國’을 다스리는 요점으로서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곧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는 ‘道千乘之國’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道千乘之國’의 아래에 ‘호대’의 吐가 달렸음을 볼 수 있다.

예문7에는 ‘호대’의 吐가 4번 사용되었는데, 역시 ‘호대’의 吐를 전후로 하여 ‘일반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행위’가 나뉜다. ‘賢賢’, ‘事父母’, ‘事君’, ‘與朋友交’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易色’, ‘能竭其力’, ‘能致其身’, ‘言而有信’은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예문8 또한 ‘호대’의 吐를 전후로 하여 ‘居蔡’는 ‘일반적인 상황’, ‘山節藻梲’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상에서 「句讀解法」의 懸吐 유형 분류 기준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미비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16항목의 유형이 체계적인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것이 아니라 지엽적이고 산발적인 특징들에 의해 분류되었다.

둘째, 사용 빈도가 높은 吐 가운데 이 16항목의 유형만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한 吐들이 다수 있다. 예컨대 ‘이면’·‘이어든’·‘인덴’ 등의 假定的 뜻을 나타내는 吐와 ‘이리오’·‘아’·‘오’ 등의 의문형 종결을 나타내는 吐 등은 사용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유형이 있지 않다.

97) 子夏曰 賢賢호대 易色하며 事父母호대 能竭其力하며 事君호대 能致其身하며 與朋友交호대 言而有信이면 雖曰未學이나 吾必謂之學矣라호리라 『論語栗谷諺解』 (01학이07)

98) 子曰 臧文仲이 居蔡호대 山節藻梲하니 何如其知也 | 리오 『論語栗谷諺解』 (05공야장17)

셋째, 유형의 명칭이 그 안에 소속된 吐들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예컨대 ‘直下之辭’, ‘承上之辭’ 등은 명칭만으로는 해당 吐들의 특징을 가늠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禁止之辭’ 등은 그 명칭이 해당 吐들의 일부 기능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비점은 「句讀解法」의 저술 목적이 懸吐의 체계적인 정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학자들에게 懸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에 있었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개별 懸吐들이 가진 특징을 포착하여 쓰임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세세하게 유형을 분류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句讀解法」 3장 ‘一字二字例’, 「句讀指南」, 「俚讀解」에서 말한 核心 漢字의 개별 특성에 따른 懸吐 원칙을 살펴본 뒤에 이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앞서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現代 國語 文法을 활용하여 現代의 懸吐 활용에 알맞은 懸吐 유형 분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3. 核心 漢字의 개별 특성에 따른 懸吐 원칙

任圭直의 「句讀解法」과 李森煥의 「句讀指南」과 朴文鎬의 「俚讀解」에는 漢文 古典의 吐를 확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漢字들이 소개되어 있다. 곧 句讀로 분절된 句와 節의 전후 관계를 특정해주고 그 성분을 규정 해주는 核心 漢字에 주목하여, 이 核心 漢字를 기준으로 이에 걸맞은 吐를 확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句讀解法」

「句讀解法」의 3장 ‘一字二字例’에서는 개별 한자별로 쓰임이 정형화되어 있는 懸吐를 62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若’·‘苟’·‘如’·‘誠’·‘儻’ 등의 글자 아래와 ‘則’·‘必’·‘便’ 등의 글자 위에는 ‘이면’·‘하면’·‘이러면’·‘인댄’·‘이어든’·‘이런들’·‘이언디’ 등의 吐가 달린다고 하여 유사한 쓰임의 글자들을 묶고 또 이 글자들과 호응하는 유사한 쓰임의 吐들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한자별 懸吐 유형 62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句讀解法」의 核心 漢字의 개별 특성에 따른 懸吐 원칙>

항 목 번 호	個別 核心 漢字	해당 글자에 대한 吐의 위치		
		上	下	
			글자의 영향 범위 아래	글자의 바로 아래
1	若 苟 如 誠 儻		이면(이시면) 하면(하 시면) 이러면 인댄(이 신댄) 이어든(이어서 든) 이런들 이언디	
	則 必 便	이면(이시면) 하면(하 시면) 이러면 인댄(이		

항 목 번 호	個別 核心 漢字	해당 글자에 대한 吐의 위치		
		上	下	
			글자의 영향 범위 아래	글자의 바로 아래
		신댄) 이어든(이어서 든) 이런들 이연디		
	若 如		은 는 애 이아 도	
	輒	이면 이어든		
	才 纔		이면 하면 하야는 이 어든	
2	則 必 便		하리니(하시리니) 이 리니(이시리니) 이니 하리라(하리이다/하시 리이다) 이리라(이리 이다/이시리이다)	
3	雖 縱		이나(이시나) 하나(하 시나) 도(하사도) 이 라도(이사도) 인들 으 로도	
	亦	도		
	然	이나 이라 이로대 호 대		이나
4	豈 何 安 焉 烏 惡 奈 那 寧 盍 曷 奚 孰 誰		이리오 오 고(이리잇 고/잇고/이니잇고/이 시니잇고/이시리잇고) 아 가(이리잇가/잇가/ 이니잇가/이시니잇가/ 이시리잇가)	
	何		이연대	
	幾		오 고 或이랏다	
	甚 甚麼 什麼 怎生		오 고	
	敢 不		아 가(이리잇가)	
5	乎 哉 與			아 이리오 근저
	乎			랜 여

항 목 번 호	個別 核心 漢字	해당 글자에 대한 吐의 위치		
		上	下	
			글자의 영향 범위 아래	글자의 바로 아래
	哉			라 여
	否 耶			아(잇가)
6	故 是故 是以	이라 이니 하니(하시니) 하나니(하시나니) 일새(이실새) 할새(하실새)		로
	故也			일새니 일새라 일새니라(일새니이다) 혼들노
7	此 是	이 이니 하니(하시니) 하나니(하시나니)		ㅣ 는
	是	을		
8	以 與 使 令 由 自		으로 로	
	以 用 使 令 教	하야(하사)		
	以	로 으로		
	自	이면 하면		
9	始 初 每 嘗 既 已 至 到 今 昔 頃 向 鄉 曩 間 乃 凡 及 居 在 比 臨 近 終 竟 纔 才 爲 處		애 에	
	既 已		인댄	
	至 到		히 하야(하사) 하야는(하사는) 은 는	
	居 在 爲		하야(하사)	
	處			은 예는
10	年 月 日 時 世 朝 夕 於			에

항 목 번 호	個別 核心 漢字	해당 글자에 대한 ㅌ의 위치		
		上	下	
			글자의 영향 범위 아래	글자의 바로 아래
	是 先是 至是			
	年 上 中 下 前 後 左 右 東 西 南 北			이라 으로
	於		에 엔 에는	
	於是	하니		
11	一 二 十 百 千 萬			이라 에
12	矧 況	이어든(이어서든) 하 야든(하산든) 이운(이 산든) 일이어든	아 가 이따녀	
13	非	이오 或이면	이라 이면 이어든(이 어서든) 인덴	
	微		이면	
	非他 無他			라
14	宜 當	하니 이니	이라 이니라(이니이 다) 이니	
	當		하야(하사) 하야는(하 사는)	
15	乃 始 方 却 便是	이라야 이라사 하고 사(하시사) 이오사 이 어사		
16	猶 尙	이라도 하야도(하사 도)	이어니와 커니와	
17	寧	론 으론	이언정	
18	而			
19	可 不可 未可	을 은	커니와 어니와	
20	因	하고(하시고) 하야(하 사)	하야	
21	却	이면 하고 이어늘		
22	或	하고 이어나 이어나	이어나	
23	曰	에 하야(하사) 하니 (하시니) 을		
24	矣			로다 리로다 라(리이 다) 니라(니이다)
25	也			라 니 여 애 니라 로다
26	耳 爾 已			니(시니) 오 라 니라

항 목 번 호	個別 核心 漢字	해당 글자에 대한 吐의 위치		
		上	下	
			글자의 영향 범위 아래	글자의 바로 아래
				(시니라)
	已			어니와
27	夫			라 근저(신저)
28	焉			하니 이니 이니라 이 러라
29	兮			여
30	有		하니 이어든	
31	無		히	
	未		이라고	
32	聞 見 知 識		하고	케라
33	問		한대	
34	欲		댄 인댄(이신댄)	
35	抑		아 근저	
36	終 愈		토록	
37	使		케	
38	果 果然		이로다	
39	人			이라 이니
	者 底			는
40	由是 由此	하니		로
41	所以	일새 할새	글새라(실새니) 글 새니라(실새니라)	
	所	의	이니(시니) 이라 이니 라(시니라)	
42	然則	이니 하니 하나니		
43	然後			에 예사
44	就令 (就)使 設令 (設)使 假饒 (假)令 (假)使		이라도(이사도) 이런 들	
45	嗚乎 於戲 嗟 乎 (嗟)夫 悲 夫 噫嘻 惜哉 (惜)乎			라
46	譬之 觀 推 度 要之 意者 較 比 看來 論之 言之		킨대	
47	且論 且說 且 道 且看 試論		하라	
48	未論 不論 無		이오 코	

항 목 번 호	個別 核心 漢字	해당 글자에 대한 吐의 위치		
		上	下	
			글자의 영향 범위 아래	글자의 바로 아래
	論			
49	已來 以來			로
	將來 後來			애 에
50	既而 已而	이러니(이러시니) 이 라가		오
51	不徒 (不)但 (不)獨 (不)惟 (不)特 (不)直 不是 非是 非		이오 이라	
52	不如 不若 似	이		
53	無乃 莫		아 가	
54	良久 久之			애 에
55	如今			엔 에는
56	如此 如是	하야		코 오 면 댄 라 일새
57	可也			어니와
58	不然			이면
	否者			댄
59	非不		이로대 이언마는(이 어신마는)	
60	不足		이어니와	
61	謂之	을		
62	與其		론 으론	

(2) 「句讀指南」

「句讀指南」은 쓰임이 비슷한 個別 漢字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이 漢字들에 달리는 吐를 열거하고 있다. 먼저 個別 漢字의 아래에 吐가 달리는 경우를 기술하고, 다음으로 個別 漢字의 위에 吐가 달리는 경우를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句讀解法」 3장 ‘一字二字例’와 그 형식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공통된 부분을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句讀學要’라는 명칭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는 懸吐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句讀解法」 2장의 懸吐 유형 분류와 그 성격이 비슷하

다고 할 수 있다.⁹⁹⁾ 다만 항목별로 거론하고 있는 懸吐의 개수가 한두 개일 뿐이어서 의미 있는 유형 분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론한 내용을 살펴보면 「句讀解法」 2장의 유형 분류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

다음은 「句讀指南」의 個別 漢字別 懸吐 유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句讀指南」의 核心 漢字의 개별 특성에 따른 懸吐 원칙>

항목 번호	개별 한자	懸吐
1	若 如 苟 倘 設或 萬一 아래	이면 이어든
2	雖 縱 假 아래	이나 이라도
3	豈 安 何 寧 烏 惡 胡 焉 盍 奈何 아래	고 이오 가 이리오
4	況 肯 忍 敢 能 아래	아 가
5	寧 아래	이언정
6	使 俾 以 令 自 與 아래	으로
7	使 令 俾 아래	케하니
8	於 于 아래	에
9	曩 頃 昔 初 嚮 先是 아래	이러니
10	向使 向若 아래	이런들
11	既 已 每 始 方 屬 아래	애
12	至 及 아래	애 하야는
13	至若 至如 아래	은
14	則 必 將 應 決 아래	이리니
15	恐 懼 아래	일가하니
16	夫 盖 凡 大抵 아래	하나니
17	非 아래	이면 이라 이오
18	因 當 아래	하야
19	吾 我 余 予 僕 朕 아래	이로니 호니
20	曰 云 謂 言 聞 以爲 아래	이라하니
21	願 請 乞 아래	하소서 하라 하노이다 하노라 ¹⁰⁰⁾
22	早知 아래	이언들
23	當 宜 可 아래	이니
24	尙 猶 惟 獨 但 只 위	호대 라도
25	況 矧 위	이어든 이온 이어나
26	以 遂 因 위	하야
27	輒 必 卽 豈 不 위	이면
28	乃 方 위	이라야

99) 「句讀指南」은 「句讀學要」 외에 「助辭訓釋」이라는 명칭으로 語助辭 성격을 띠는 漢字들에 관하여 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懸吐 방법과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겠다.

29	更 又 且 復 亦 위	이오 하고 과
30	至 及 會 適 後必 至是 위	이어니
31	今 위	이어늘 이러니
32	既而 已而 頃之 久之 須臾 위	이러니
33	所 위	의
34	故 是以 由是 於是 위	이라
35	然 위	이나
36	與 暨 及 위	와
37	非 위	이오

다음은 ‘句讀學要’의 해당하는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句讀指南」의 句讀學要>

항목 번호	懸吐 상황	懸吐	관련된 「句讀解法」 2장의 懸吐 유형
1	主(主)	한대	②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
2	客(客)	이어늘	②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
3	他人相與(他人과 함께 할 때)	하니 이라	②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
4	自己事(自己的 일)	호니 하노니	⑧自稱之辭
5	他人事(他人的 일)	하니	②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
6	往昔事(과거의 일)	하더니 이러니	⑩前日之辭
7	未來事(미래의 일)	이러니 하리니	⑪將然之辭
8	本然事(本然的 일)	하나니	⑦泛論之辭
9	當然事(當然의 일)	이니	
10	必然事(必然의 일)	하리니 이러니	⑪將然之辭
11	單舉一人 (一人을 단독으로 거론할 때)	이	⑤直下之辭
12	雙舉兩人 (兩人을 나란히 거론할 때)	은	⑤直下之辭
13	對偶事(對偶가 되는 일)	이오	③待對駢偶之辭
14	連疊事(連疊이 되는 일)	하고 하며	③待對駢偶之辭

100) 이 항목에서는 이 따들 외에 두 개의 따들 더 들고 있으나 口訣의 판독이 어려워 여기에는 적지 않았다.

(3) 「俚讀解」

「俚讀解」역시 한 장 분량의 짧은 저술로, 「句讀解法」 2장의 懸吐의 유형을 분류한 형식과 3장의 個別 漢字別로 懸吐 유형을 밝힌 형식이 혼재된 형태이다. 총 33개 항목이 되는데, 그 중 14번, 15번, 17번, 18번, 19번, 20번, 23번, 24번, 25번, 31번 10개의 항목은 個別 核心 漢字에 달리는 吐를 기술하고 있다. 「俚讀解」에서 설명한 懸吐 방법 역시 「句讀解法」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음은 「俚讀解」의 개별 상황에 따른 懸吐 유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俚讀解」의 核心 漢字의 개별 특성에 따른 懸吐 원칙>

항목 번호	개별 상황	懸吐
1	其相因有以義(相因하여以의 뜻이 있을 때)	하야
2	其相對有而義(相對하여而의 뜻이 있을 때)	하고 하며
3	事之中斷(사가 중단될 때)	하니 한대 이어늘
4	言之中斷(言이 중단될 때)	이라하니
5	勢所當然(勢가 당연할 때)	이니
6	文則斷落而義猶羈縻(文은 끊어지나 義가 이어질 때)	이라
7	文終之主辭(주체의 행위로 문장을 맺을 때)	이다
8	其賓辭(객체의 행위로 문장을 맺을 때)	이러라
9	賓主之會(주체와 객체가 결합되어 있을 때)	하니라
10	指物若事(物이나 事를 가리킬 때)	이 은 을
11	枚數(날날이 열거할 때)	와 과 이오 며
12	方將(한창 진행 중일 때)	이러가 할새
13	昔今之交(과거와 현재가 교차할 때)	이러니
14	未然之初辭如若苟之下 (‘若’·‘苟’처럼 가정을 시작하는 말의 아래)	이면 이어든 인댄
15	其終辭如必當之下 (‘必’·‘當’처럼 가정을 종결하는 말의 아래)	하리니
16	舍輕就重而有固義 (輕에서 重으로 발전하고 固의 뜻이 있을 때)	어니와
17	將反語如雖借之下然但之上 (反語를 뜻하는 ‘雖’·‘借’의 아래나 ‘然’·‘但’의 위)	이나 라도 이로대 인들
18	將更進一層如况矧之上 (점차 고조되는 ‘况’·‘矧’의 아래)	이온
19	過略之辭如既每之下	애 에

	(‘既’·‘每’와 같은 過略의 말의 아래)	
20	猶亦之上(‘猶’·‘亦’의 위)	도
21	有曰義(曰의 뜻이 있을 때)	호대
22	有故義(故의 뜻이 있을 때)	일새
23	以使與自之下(‘以’·‘使’·‘與’·‘自’의 아래)	으로
24	寧之上(‘寧’의 위)	으론
25	其下(‘寧’의 아래)	언정
26	自言己事(자기의 일을 말할 때)	호니 하노라
27	勸乎人(남에게 권할 때)	하라 어다
28	欲其如此(이와 같기를 요구할 때)	이라야
29	槩言(개괄하여 말할 때)	히
30	歎辭(감탄하는 말일 때)	이어든 로다
31	乎哉耶歎若何豈誰那之下 (‘乎’·‘哉’·‘耶’·‘歎’·‘若’·‘何’·‘豈’·‘誰’·‘那’의 아래)	아 오 인저 리오 고
32	於所尊(존경하는 바일 때)	하시이다 소서 잇가
33	其一讀兩用者有三則反語之 (두 의미로 쓰이면서 反語로 쓰이는것)	이어늘 호대 이어든

Ⅲ. 現代 國語 文法을 활용한 懸吐 유형의 재분류

懸吐를 現代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懸吐의 표준화된 유형 분류와 간소화 작업이 필요하다. Ⅱ장에서 살펴본 「句讀解法」의 懸吐 분류 유형은 제법 상세함과 꼼꼼함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분류기준이 되는 특징이 산발적이고 사용 빈도가 높은 吐 중에 분류가 제외된 것이 있으며 유형의 명칭과 소속된 懸吐의 성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現代의 懸吐 활용에 알맞은 懸吐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에서 설명이 공통된 懸吐들을 추출하여 이 기준을 적용해 분류해 보고자 한다.

1. 懸吐 유형 재분류 방법에 관하여

새로운 懸吐 유형 분류는 「句讀解法」2장의 懸吐 유형을 기반으로 하되, 앞서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고 現代의 國語 文法 체계에서 이해하거나 활용하기가 쉬운 분류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우선 크게 ‘기본 유형’과 ‘확장 유형’으로 분류하여, 본고 Ⅱ-2장에서 ‘懸吐 앞뒤 구절의 의미관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였던 유형은 ‘기본 유형’으로 분류하고, ‘懸吐 앞 구절의 특징에 따른 유형’과 ‘인용과 관련된 유형’으로 분류하였던 유형은 ‘확장 유형’으로 분류하겠다.

‘기본 유형’은 懸吐 앞뒤 구절 사이의 의미관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유형들로, 다시 크게 ‘助詞類의 懸吐 유형’, ‘문장 내에서 구절 간의 연결 관계를 밝혀주는 懸吐 유형’,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懸吐 유형’의 세 종류로 분류하겠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거의 대부분의 懸吐들을 빠뜨림 없이 분류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助詞類의 懸吐 유형’은 現代 國語의 ‘格助詞’의 용법을 활용하여 ‘主格’, ‘目的格’, ‘冠形格’, ‘副詞格’ 등의 유형으로 다시 세분한다.

‘문장 내에서 구절 간의 연결 관계를 밝혀주는 懸吐 유형’은 그 기능에 따라 ‘順接’, ‘逆接’, ‘對偶’, ‘假定’, ‘因果’ 등의 유형으로 다시 세분한다.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懸吐 유형’은 역시 그 기능에 따라 ‘疑問’, ‘推測’, ‘命令’, ‘感歎’ 등의 유형으로 다시 세분한다.

‘확장 유형’은 구절의 의미 관계 외에 부가적인 정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懸吐 유형으로, ‘기본 유형’에 중복되어 소속되거나 ‘기본 유형’의 懸吐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확장 유형’은 그 기능에 따라 ‘과거 시제의 吐’, ‘미래 시제의 吐’, ‘泛論의 吐’, ‘自稱의 吐’ 등으로 나누며, ‘복합된 吐’의 유형 역시 여기에 소속시켰다.

분류 대상이 되는 吐는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에서 언급한 吐 가운데 두 자료 이상에서 설명이 중복되는 吐로 한정하였다.

2. 懸吐의 기본 유형과 확장 유형의 도출

이 장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유형 분류 방법을 토대로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에서 추출한 懸吐를 분류하여 각 자료들의 해당 吐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1) 懸吐의 기본 유형

1) 助詞類의 懸吐 유형

① 主格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이	⑤直下之辭 ⑤姓名稱號 7此·是위 7此·是아래(1) 25也아래(1) 39者아래(1) 39底아래(1 句絶者) 52不如·不若·不似위	⑪單舉一人	10指物若事
은	⑤直下之辭 ⑤姓名稱號(은/는) 1若·如아래(은/는) 7此·是아래(는) 9至아래(은/는) 9處아래 19可위 19不可·未可위 39者아래(는) 39底아래(는 句絶者)	13至若·至如 아래 ⑫雙舉兩人	10指物若事

② 目的格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을	⑤直下之辭		10指物若事

	7是위(或) 19可위 19不可·未可위 23曰위 61謂之위		
--	---	--	--

③冠形格的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의	⑤直下之辭 41所위	33所 위	

④副詞格的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으로	6故·是故·是以아래(로) 8以·與·使·令·由·自아래(으로/로) 8以위(으로/로或) 40由是·由此아래(로) 49已來·以來(로)	6使·俾·以·令·自·與아래	23以·使·與·自之下
에	1若·如아래(애) 9始·初·每·嘗·既·已·至·到·今·昔·頃·向(嚮·曩)·間·乃·凡·及·居·在·比·臨·近·終·竟·纔·才·爲·處아래(애/에) 10年·月·日·時·世·朝·夕·於是·先是·至是아래 10上·中·下·前·後·左·右·東·西·南·北아래(부연) 10於아래 11一·二·十·百·千·萬아래 23曰위 25也아래(애) 43然後아래 49將來·後來(애/에) 54良久·久之아래(애/에)	8於·于 아래 11(애)既·已·每·始·方·屬 아래 12(애)至·及 아래	19過略之辭如既·每之下(애/에)
과	⑫歷言之辭(와/과) ⑫及·與위	29更·又·且·復·亦위	11枚數(와/과)

	36(와) 與·暨·及 위	
--	---------------	--

⑤기타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도	1若·如아래 3雖·縱아래 3亦위		20猶·亦之上
히	9至아래 31無아래		29槩言

2)문장 내에서 구절 간의 연결 관계를 밝혀주는 懸吐 유형

①順接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하야	①凡一意相承及一人之事 8以·用·使·令·教위 9至(·及·到)아래(은/는) 9居·在·爲아래 14當아래 20因위 20因아래 23曰위 56如此·如是위	18因·當 아래 26以·遂·因 위	1其相因有以義

②逆接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이나	3雖·縱아래 3然위 3然아래	2雖·縱·假 아래 35 然 위	17將反語如雖·借之下然·但之上
이라도	3雖·縱아래 16猶·尙위 44就令·就使·設令·設使·假饒·假令·假使아래	2雖·縱·假 아래 24尙·猶·惟·獨·但·只 위(라도)	17將反語如雖·借之下然·但之上(라도)
이언정 호대	17寧아래 ⑨相反之辭	5寧 아래 24尙·猶·惟·獨·但·	25寧之下 21有曰義

	⑨唯·獨·但·只·特·猶·尙위 ⑨固아래 ⑩言語及行事在下文者上 3然위(부연)	只 위	33其一讀兩用者有三則反語之
이어늘	②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 ⑨相反之辭 ⑨今위(⑩前日之辭에도 언급) ⑨却위 21却위	31今 위 ②客	3事之中斷 33其一讀兩用者有三則反語之
한대	②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 33問아래	①主	3事之中斷
어니와	⑨相反之辭 ⑨固아래(이어니와) 16猶·尙아래(이어니와) 19可아래 19不可·未可아래 26已아래(이어니와) 57可也아래(其他與斷辭同) 60不足아래(不足道·不足論 등)		16舍輕就重而有固義
이로대	⑨相反之辭 ⑨唯·獨·但·只·特·猶·尙위 ⑨固아래 3然위(부연) 59非不아래		17將反語如雖·借之下然·但之上
인들	3雖·縱아래		17將反語如雖·借之下然·但之上

③對偶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이오	③待對駢偶之辭 ③亦·且·又·復·更위 13非위 48未論·不論·無論아래 50旣而·已而아래(오) 51不徒·不但·不獨·不	17非 아래 29 更·又·且·復·亦 위 37 非 위 ⑬對偶事	11枚數

	惟·不特·不直·不是·非 是아래(非字下同) 56如此·如是아래		
하고	③待對駢偶之辭 ③亦·且·又·復·更위 20因위 21却위 22或위 32聞·見·知·識아래	29更·又·且·復·亦 위 ④連疊事	2其相對有而義
하며	③待對駢偶之辭 ③亦·且·又·復·更위	④連疊事	2其相對有而義

④假定の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이면	1若·苟·如·誠·儻아래 則·必·便위 1輒위 1才·纔아래 8自위 13非위(或) 13非아래 13微아래 21却위 56如此·如是아래(면) 58不然아래	1若·如·苟·倘·設或· 萬一 아래 17 非 아래 27輒·必·卽·豈·不 위	14未然之初辭如若·苟 之下
이어든	1若·苟·如·誠·儻아래 則·必·便위 1輒위 1才·纔아래 12矧·況위 13非아래 30有아래	1若·如·苟·倘·設或· 萬一 아래 25 況·矧 위	14未然之初辭如若·苟 之下 30歎辭 33其一讀兩用者有三 則反語之
이런들	1若·苟·如·誠·儻아래 則·必·便위 44就令·就使·設令·設 使·假饒·假令·假使아 래	10向使·向若 아래	
인댄	1若·苟·如·誠·儻아래 則·必·便위 5乎아래(댄) 9旣·已아래 13非아래(或) 34欲아래(댄/인댄) 56如此·如是아래(댄) 58否者아래(댄)		14未然之初辭如若·苟 之下

⑤因果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이니	⑥承上之辭 2則·必·便아래 6故·是故·是以위 7此·是위 14宜·當위 14宜·當아래(부연) 25也아래(ㅣ니) 26耳·爾·已아래(니) 28焉아래 39人아래(上有地名者) 41所아래 42然則위	23當·宜·可 아래 ⑨當然事	5勢所當然
하니	②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 ⑥承上之辭 6故·是故·是以위 7此·是위 10於是위 14宜·當위 23曰위 28焉아래 30有아래 40由是·由此위 42然則위	③他人相與 ⑤他人事	3事之中斷
이리니	⑪將然之辭 2則·必·便아래	14則·必·將·應·決아래 ⑦未來事 ⑩必然事	
하리니	⑪將然之辭 2則·必·便아래	⑦未來事 ⑩必然事	15其終辭如必·當之下
하나니	⑦泛論之辭 ⑦夫·凡·蓋·大抵아래 末句 6故·是故·是以위 7此·是위 42然則위	16夫·蓋·凡·大抵 아래 ⑧本然事	
하노니	⑧自稱之辭(承上或他義相承之例) ⑧請·願·竊·自·愚·欲· 敢·恐·乞·望아래末句	④自己事	
호니	⑧自稱之辭 ⑧請·願·竊·自·愚·欲·	19吾·我·余·予·僕· 朕 아래	26自言己事

	敢·恐·乞·望아래末句	④自己事	
이로니	⑧自稱之辭 ⑧請·願·竊·自·愚·欲· 敢·恐·乞·望아래末句	19吾·我·余·予·僕· 朕 아래	
이러니	⑩前日之辭 ⑩今·後·及·會위 久· 初·始아래 50既而·已而위	9曩·頃·昔·初·嚮·先 是 아래 31 今 위 32既而·已而·頃之· 久之·須臾 위 ⑥往昔事	13昔今之交
하더니	⑩前日之辭 ⑩今·後·及·會위 久· 初·始아래	⑥往昔事	

⑥기타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이라야	15乃·始·方위 (이라야/ 이라샤) 15却위아래 15便·是위	28乃·方 위	28欲其如此
이온	12矧·況위	25況·矧 위	18將更進一層如況·矧 之上
이러가	⑩前日之辭 ⑩今·後·及·會위 久· 初·始아래 ⑩尋·旋·還·乍위 方아 래 50既而·已而위		12方將
할새	⑪將然之辭 ⑪將아래 6故·是故·是以위 41所以위		12方將
일새	6故·是故·是以위 (글 새) 56如此·如是아래 (글 새)		22有故義
으론	17寧위(론/으론) 62與其아래(론/으론)		24寧之上

3)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懸吐 유형

①疑問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고	4豈·何·安·焉·烏·惡· 奈·那·寧·盍·曷·奚·孰· 誰아래 4幾아래 4甚·甚麼·什麼·怎生아 래	3豈·安·何·寧·烏· 惡·胡·焉·盍·奈何 아래	31乎·哉·耶·歟·若·何· 豈·誰·那之下
이오	4豈·何·安·焉·烏·惡· 奈·那·寧·盍·曷·奚·孰· 誰아래(오) 4幾아래(오) 4甚·甚麼·什麼·怎生아 래(오) 26耳·爾·已아래(오)	3豈·安·何·寧·烏· 惡·胡·焉·盍·奈何 아래	31乎·哉·耶·歟·若·何· 豈·誰·那之下(오)
가	4豈·何·安·焉·烏·惡· 奈·那·寧·盍·曷·奚·孰· 誰아래 4敢不아래 12矧·況아래 53無乃·莫아래	3豈·安·何·寧·烏· 惡·胡·焉·盍·奈何 아래 4況·肯·忍·敢·能 아 래	
이리오	4豈·何·安·焉·烏·惡· 奈·那·寧·盍·曷·奚·孰· 誰아래 5乎·哉·與아래	3豈·安·何·寧·烏· 惡·胡·焉·盍·奈何 아래	31乎·哉·耶·歟·若·何· 豈·誰·那之下(리오)
아	4豈·何·安·焉·烏·惡· 奈·那·寧·盍·曷·奚·孰· 誰아래 4敢不아래 5乎·哉·與아래 5否·耶아래 12矧·況아래 35抑아래 53無乃·莫아래	4況·肯·忍·敢·能 아 래	31乎·哉·耶·歟·若·何· 豈·誰·那之下

②推測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인지	5乎·哉·與아래(인지) 27夫아래(인지) 35抑아래		31乎·哉·耶·歟·若·何· 豈·誰·那之下

③命令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하라	③禁止之辭 ③莫·勿·毋·無·請·願· 愼·勉·乞·望·須아래 ③詔制之辭末句 47且論·且說·且道·且 看·試論아래	21願·請·乞 아래	27勸乎人
어다	③禁止之辭(이어다) ③莫·勿·毋·無·請·願· 愼·勉·乞·望·須아래 (이어다)		27勸乎人

④感歎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로다	④斷辭(이로다游辭以 斷之例) ⑧自稱之辭(이로다) ⑧請·願·竊·自·愚·欲· 敢·恐·乞·望아래末句 (이로다) 24矣아래 25也아래(로다) 38果아래 38果然아래		30歎辭

⑤기타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이라	④斷辭(微絕之辭) ⑤直下之辭 3然위 5哉아래(라) 6故·是故·是以위 10年아래 11一·二·十·百·千·萬 아래 13非아래 13非他·無他아래(라) 14宜·當아래 24矣아래(라) 25也아래(라) 26耳·爾·已아래(라) 27夫아래(라) 39人아래(上有地名者)	17非 아래 34故·是以·由是·於 是 위 ③他人相與	6文則斷落而義猶羈縻

	41所아래 45嗚乎(於戲)·嗟乎·嗟夫·悲夫·噫·嘻아래(라) 46惜哉·惜乎아래(라) 51不徒·不但·不獨·不惟·不特·不直·不是·非是아래(非字下同) 56如此·如是아래(라)		
하노라	⑧自稱之辭(亦斷辭之例) ⑧請·願·竊·自·愚·欲·敢·恐·乞·望아래末句	21願·請·乞 아래	26自言己事
하니라	④斷辭		9賓主之會
이러라	④斷辭(如言論行事敘述之斷辭) 28焉아래		8其賓辭

(2)懸吐의 확장 유형

1)과거 시제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이러니	⑩前日之辭 ⑩今·後·及·會위 久· 初·始아래 50既而·已而위	9曩·頃·昔·初·嚮·先是 아래 31 今 위 32既而·已而·頃之·久之·須臾 위 ⑥往昔事	13昔今之交
하더니	⑩前日之辭 ⑩今·後·及·會위 久· 初·始아래	⑥往昔事	

2)미래 시제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이러니	⑪將然之辭 2則·必·便아래	14則·必·將·應·決아래 ⑦未來事 ⑩必然事	
하리니	⑪將然之辭	⑦未來事	15其終辭如必·當之下

	2則·必·便아래	⑩必然事	
할새	⑪將然之辭 ⑪將아래 6故·是故·是以위 41所以위		12方將

3)泛論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하나니	⑦泛論之辭 ⑦夫·凡·蓋·大抵아래 末句 6故·是故·是以위 7此·是위 42然則위	16夫·蓋·凡·大抵 아래 ⑧本然事	

4)自稱의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하노니	⑧自稱之辭(承上或他義相承之例) ⑧請·願·竊·自·愚·欲·敢·恐·乞·望아래末句	④自己事	
호니	⑧自稱之辭 ⑧請·願·竊·自·愚·欲·敢·恐·乞·望아래末句	19吾·我·余·予·僕·朕 아래 ④自己事	26自言己事
이로니	⑧自稱之辭 ⑧請·願·竊·自·愚·欲·敢·恐·乞·望아래末句	19吾·我·余·予·僕·朕 아래	
하노라	⑧自稱之辭(亦斷辭之例) ⑧請·願·竊·自·愚·欲·敢·恐·乞·望아래末句	21願·請·乞 아래	26自言己事

5)복합된 吐

懸吐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이라하니	⑭引古語及他人言之辭 ⑭曰·謂·以爲·稱·聞아래	20曰·云·謂·言·聞·以爲 아래	4言之中斷

V. 結論

본고는 朝鮮 後期の 학자들이 남긴 懸吐 방법에 대한 저술인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 세 자료를 통하여 懸吐의 전반적인 원칙과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세 자료의 공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現代에 적합한 懸吐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句讀解法」에서 말한 懸吐 기본원칙을 통하여 漢文 原文의 의미를 더욱 치밀하고 자세하게 풀이하도록 돕는 懸吐의 기능을 알 수 있었다. 또 「句讀解法」의 懸吐 유형을 분석하면서 개별 현토의 쓰임을 실제 현토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유형 분류 기준이 되는 특징이 다소 산발적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吐 중에 분류가 제외된 것이 있고 유형의 명칭과 소속된 懸吐의 성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句讀解法」, 「句讀指南」, 「俚讀解」의 核心 漢字의 개별 특성에 따른 懸吐 원칙을 비교함으로써 懸吐 방법에 관한 세 자료의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現代에 적합한 懸吐의 유형 분류 기준을 도출하여, 크게 ‘기본 유형’과 ‘확장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기본 유형’은 ‘助詞類의 懸吐 유형’, ‘문장 내에서 구절 간의 연결 관계를 밝혀주는 懸吐 유형’,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懸吐 유형’의 세 종류로 분류한 뒤에 다시 각 유형별로 하위의 유형을 두었다. ‘확장 유형’은 ‘과거 시제의 吐’, ‘미래 시제의 吐’, ‘泛論의 吐’, ‘自稱의 吐’, ‘복합된 吐’ 등의 유형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懸吐는 漢文 原典을 풀이하고 정리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 이어진 정교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現代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간소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기본자료

- 李森煥, 「句讀指南」, 『百家衣』, 近畿實學淵源諸賢集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
- 任圭直, 「句讀解法」, 『錦川集』, 서울대 규장각.
- 朴文鎬, 「俚讀解」, 『壺山集』, 국립중앙도서관.
- 『論語(附諺解)』, 학민문화사, 1989.
- 『孟子(附諺解)』, 학민문화사, 1989.
- 『栗谷全書』8, 학민문화사, 2008.

2.학위논문

- 유영옥, 「校正廳本 四書諺解의 經學的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충구, 「經書諺解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전호연, 「五書懸吐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만호, 「虛辭와 口訣의 機能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일반논문

- 남풍현,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100, 1988.
- 박은희, 「한국 고전문헌의 표점방식에 대한 시론 -중국식 표점과 한국식 현토의 차이를 중심으로-」, 『역사와담론』53, 2009.
- 박은희, 「한문번역의 측면에서 바라본 표점과 현토의 차이 -고리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39, 한국고전번역원, 2012.
- 박종천, 「標點과 懸吐(口訣)의 비교 분석」, 『民族文化』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신영주, 「『한문토석』에 나타난 윤근수와 최립의 현토 담론에 관하여」, 『한문학보』20, 우리한문학회, 2009.

신영주, 「이상수 문하의 문장해석론과 우리식 한문 읽기」 『한문교육연구』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심재기, 「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대하여 -生成背景 및 釋讀機能을 중심으로-」, 『한국학보』1, 일지사, 1975.

안병희,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진단학보』41, 1976.

윤용선, 「조선 후기의 구결 사용에 대한 고찰 -『句讀解法』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107, 진단학회, 2009.

이규필, 「한문고전 번역 및 표점에 있어 현토 활용의 문제 -‘한대’와 ‘(이)어늘’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3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이병혁, 「傳統 漢文 敎育 -漢文 懸吐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0.

이상하, 「한문학습 및 번역에 있어서 현토의 문제」, 『민족문화』29, 한국고전번역원, 2006.

이상하, 「한문의 토와 표점의 상관관계」, 고전번역연구3,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정만호, 「‘以’의 용법과 현토」, 『한문학논집』17, 근역한문학회, 1999.

최 식, 「句讀解法 漢文의 句讀와 懸吐 口訣」, 『민족문화』32, 한국고전번역원, 2008.

최 식, 「漢文讀法의 韓國的 特殊性 -句讀, 懸吐, 口訣-」, 『한자한문교육』2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ABSTRACT

Analysis of Rules and Type Classification of Hyonto(懸吐) in Hanmun Classics

- focused on *Gudu-Haebop*(句讀解法), *Gudu-Jinam*(句讀指南) and
Riduhae(俚讀解) -

Lee Jeong Eun

Departmen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Hanmun sentence(classical Chinese writing) is basically a series of Chinese characters with no punctuation marks that we need to analyze its sentence structure at first when we read Hanmun sentence. Hyonto(懸吐) is to visualize its grammatical information with Korean traditional punctuation mark called Gugyol(口訣) with which we clarify the meaning of each sentence and help readers understand Hanmun sentence easily.

Most of modern scholars of East Asian Studies agree to the necessity of modern punctuation marks namely Pyojom(標點). However, Hyonto includes almost all functions of Pyojom, besides it provides clear and specific information on the grammatical relations between phrases. While Pyojom is in some degree systematized that it is widely used in modern

East Asia, hyonto has no standard yet that hyonto words for same sentence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a person. That is why the standardization of hyonto is needed.

There are some textbooks written in 19th century designed for beginners of hanmun that suggest the way of dividing phrases and adding hyonto. *Gudu-Haebop*, *Gudu-Jinam* and *Riduhae* are good examples. They classified the patterns and established basic rules of hyonto.

In this study, I attempted to analyze the rules and patterns of hyonto with several application cases to help readers understand overall idea of hyonto, and also suggested the classification standard of hyonto based on above three text, for standardization of hyonto.

In the first chapter, I surveyed the conception and utility of hyonto and mentioned previous research on hyonto and three texts namely *Gudu-Haebop*, *Gudu-Jinam* and *Riduhae*. Also, I mentioned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n the second chapter, I analyzed the rules and patterns of hyonto mentioned in *Gudu-Haebop*, *Gudu-Jinam* and *Riduhae* with several cases in *Nono-Onhae*(論語諺解) and *Menja-Onhae*(孟子諺解). In addition, I mentioned the basic rules and classification of hyonto based on the relation of phrases and component of sentences, and argued exceptional cases according to particular characters, focused on *Gudu-Haebop*.

In the third chapter, I attempted to supplement partial deficiency of *Gudu-Haebop*, *Gudu-Jinam* and *Riduhae*, and suggested the new standard of classification of hyonto with the criteria of modern Korean

grammar. In addition I extracted several hyonto words commonly mentioned in above three texts and classified them with this new standard.

At last in conclusion part, I summarized the text and suggested the henceforth task.